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며 이 고난을 잘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5월 9일 (토) 제 1776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위기의 때 진정한 오순절 신앙이 필요하다”

CT, 크리스 그린 교수의 ‘오순절신학의 대유행병 대응방법’ 보도

많은 오순절 크리스천들(Pentecostals)이 현재의 대유행병에 대해 이상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러한 대응 방식 때문에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의 건전하고 풍부한 신앙이 가려지고 있으며, 오순절신학은 가볍고 어리석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한다.

이런 사실이 안타까운 것은 오순절 신앙(Pentecostalism)이 주는 선물이 많기 때문이다. 이 신앙은 신비와 예언을 지향하며, 깊이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친다.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한다고 오순절신학은 가르친다. 이 신앙은 우리가 개인적, 공동체적 책임감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신다는 큰 기대

재즈처럼 기도하라

오순절 신앙을 이야기할 때면 늘 기도를 함께 이야기한다. 하버드 신학자 하비 콕스는 흥겨운 즉흥성과 협력적인 열정으로 완성되는 재즈의 특성에 이것을 오순절 신앙과 비교했다(Jazz and Pentecostalism).

오순절 크리스천들은 이 즉흥성이 성령과 함께 리듬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사랑으로 열려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열렸던 예전 천막부흥집회의 정신이 깃들여 있다. 오순절의 기도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개방성이 있으며, 언제든지 놀라고 변화될 준비가 돼 있는 자세를 그 특징으로 한다.

기도의 이러한 개방성은 오순절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다른 사역들에게도 즉흥적으로 임하도록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오순절 크리스천들은 익숙한 사역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 가운데로 가까이 들어가서 그곳을 그들의 집으로 삼는다.

그들은 교회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도, 목적 자체로도 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익숙한 말을 잊어버리고, 문자 그대로 또 비유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울 준비가 돼있다. 이것은 그들이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방언을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다.

고통과 상실의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기란 언제나 어렵다. 그러나 받은 지혜에 충실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

를 품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신앙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거나 친숙한 것들을 우상화하지 말라고 가르치며, 오순절의 거룩한 능력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크리스차니티투데이는 Southeastern University의 신학교수이며, 오클라호마 털사에 있는 Sanctuary Church 목사인 오순절 신학자 크리스 그린(Chris Green)의 글을 게재했다. 이것들은 현재의 위기에서 교회에 절실한 가르침들이다(Coronavirus Calls for Revival of Real Pentecostalism: Despite failures, Spirit-filled theology can show us how to respond to the pandemic).

에 차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날것 그대로의 꾸미지 않은 기도다. 절규하고 항의하고, 요구하고 따지고, 애걸하고 부르짖는 기도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절저하고 자신 있게 자신을 개방하는 기도다.

이 위기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에 이런 종류의 개방성이 절실하다고 확신한다. 우리에게 ‘거룩한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 담대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재난이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우리는 어떤 해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세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오순절 신앙은 공동체를 지향하고 이웃 섬김의 사명을 중시한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기도는 행동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신앙은 알고 있다. (3면으로 계속)

5월 가정의 달...소대시

가정이 천국이랍니다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천국은 슬픔이 없고
아픔과 괴롭과 외로움이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와 분냄도 없고
해하는 것이나 상하게하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만져주는 뜰에서
천국인 듯 살고 싶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남의 집 온 듯이 어색하지 않게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는 기쁨이 넘치고
미소와 포근함과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하고
수정같이 맑은 물과
햇빛보다 찬란한 광채가 빛나는
곳입니다.

하늘나라에도 이렇게 예쁜
꽃이 있을까요
하늘나라에도 이렇게 고운
노래 있을까요
하늘나라에도 이렇게 편한
집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우리 집이 천국 같다 해도
훗날 그 나라에 가보면
이런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천국이랍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천국처럼 살고 싶습니다.

큰 소리보다는 속삭이는 사랑이
있는 식탁과
지저귀는 새소리가 냇물처럼
찰랑이는 거실과
하얀 양털같이 포근한 손길로

그러나 그 때까지는
우리 집이 제일 좋은 곳으로
아는 기쁨으로
살게 하고 싶습니다.



서은 목사 (3면)



박은초 목사 (4면)



“천고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11면) 김경일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i.edu | (213) 665-0009 | 650 Shatto Pl., Los Angeles

성경말, 성경대,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chpress.com / chp@lchpress.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발행인 칼럼

부열(父悅) 모열(母悅)



김성국 목사 (센트럴교회 담임)

아버님은 마라톤을 너무 좋아하셨다. 훗날 생각해 보니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이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가 너무 고마우셨기 때문 이리라. 이제 막 독립된 나라에 1947년 보스턴 마라톤 우승을 안겨준 서운복 선수가 자랑스러우셨으리라.

아버님께 기쁨을 드리 기 위해 중학교 때 육 상부에 들어갔다. 등교하기 전, 수 Km의 거리를 매일 달리고야 학교에 갔다. 하지만 지구력과 스피드 등 모든 것이 부족해 학교 대표선수는 못되었고 당연히 아버님이 보시는 가운데 당당히 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마라톤을 좋아하셨던 아버님께 마라톤을 통해 기쁨을 드리지 못했다.

아버님은 기도를 참 좋아하셨다. 깊은 새벽 어찌다 잠을 깨면 언제나 아버님은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다. 아버님 앞에는 성경책이, 옆에는 손수건이 놓여 있었는데 그 손수건이 항상 젖어 있었던 것이다. 장로님이셨던 아버님은 내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직접 말씀을 안 하셨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고 또 기도하는 아들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셨을 것이다. 나는 아버님보다 먼저 일어나 기도했던 기억이 거의 없으니 기도 생활을 통해서 아버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

아버님은 복음을 가장 좋아하셨다.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다가 집으로 오셔서 2주 정도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그 2주 동안 하신 유일한 말씀은 "복음전파, 복음전파, 복음전파" 세 마디 뿐이었다. 내가 복음을 아버님만큼 좋아하는가, 복음대로 사는가, 복음만을 전하는가 생각해 볼 때마다 부끄럽다.

어머님은 내게 맞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어려운 살림에도 정성을 다하신 식탁을 베풀어 주셨다. 어릴 때에는 22일 동안 집에서 금식하시면서 꼬박 밥을 차려주셨는데 그렇게 밥을 지어주시는 어머니가 놀랍고, 밥을 거르지 않고 먹었던 내 스스로도 놀라웠다. 그런 어머니께 맞는 음식 사드리며 고운 블라우스 사드리며 기쁨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머님은 아들이 태평양보다 넓은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셨고 내게 그런 소원을 기쁘게 말씀하시곤 하셨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찻잔보다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어머님은 잘 알고 계셨을 것이다. 나는 넉넉한 마음으로 어머니께 기쁨을 드리는 아들이 못 되었던 것이다.

"父悅, 母悅!" "아버님의 기쁨, 어머님의 기쁨!" 어떻게든 아버님께 기쁨을 드리고 어머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었는데 두 분 다 이 땅에 계시지 않다. 이 땅에서 아버지 어머니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효도는 너무 늦고 말았다. 언제나 그들 '자신'보다 이 부족한 '자식'을 위해 사셨던 부모님의 살아생전에 한 번도 그들의 큰 기쁨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불효자는 또 눈물짓는다.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BBC, 의료장비/병상/인력 부족 병동 의사들의 고충 보도

오늘날 팬데믹으로 의료 장비와 침상, 인력이 부족해진 상황. 의사들은 끔찍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스테파노 디 바르톨로메오는 이탈리아 로디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일하는 마취과 의사다. 그가 일하는 병원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환자실에 병상이 하나 날 때마다 의사들은 어떤 환자를 보낼지를 결정해야 한다.

디 바르톨로메오가 이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중순. 3월 13일 당시 이미 1,100건의 확진자가 이 병원에 있었다. 그는 "병원에서 인간미를 쓰고 있었지만, 이미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디 바르톨로메오는 중환자실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병동에서 일한다. 비침습적 기계환기(non-invasive ventilation)와 기도내 튜브를 꽂는 처치를 하는 곳이다. 그러나 모든 환자들이 처치를 받지는 못한다. 디 바르톨로메오는 "너무 나이가 많거나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은 산소만 공급 받는다"고 말했다.

BBC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병동에서 살릴 자와 죽을 자를 결정해야 하는 의사들의 고민을 생생하게 보도했다(Coronavirus: Doctors face agonising life-death decisions).

어려운 결정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보건서비스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4월 28일 기준 확인된 코로나19 사망자는 21만2000여 명, 세계 210개 국가의 병상이 코로나19 환자들로 가득 찬 상태다.

인공호흡기, 보호장비, 심지어 의료진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의사들이 최우선으로 돌볼 환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어떤 생명이 더 가치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논란이 잇따르고 있지만 의료진들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3월 23일, 전 세계의 의사들과 학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자원 배지 방식을 설명하

는 사람들에게 이롭다는 게 이론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논리가 빈틈없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인공호흡기로 치료 받는 젊은 사람과 노인이 같은 사망위험을 가지

윤리적 문제

이러한 결정은 오직 병원과 의료 시스템이 극심한 압박을 받을 때, 즉 환자 수가 최고조



팬데믹 속 효용 극대화가 가장 큰 고려 사항 선택해야만 하는 의료진 정신건강관리도 필요

는 일련의 윤리지침 논문을 작성해 '뉴잉글랜드저널 오브 메디슨(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에 발표했다.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먼저 온 환자를 치료하는" 통상적인 방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나이가 어리고 기존의 건강문제가 적은 이들 중에 중증인 환자를 우선 치료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예제키엘 엠마누엘 펜실베이니아대 의학 윤리 보건정책학부장은 "살릴 수 있는 인명의 숫자와 이를 통해 늘어나는 수명 측면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큰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젊고 건강상태가 좋은 이들의 생존 가능성과 기대 수명이 더 높다는 것이다. 부족한 자원을 이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더 많

고 있다고 해보자. 노인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젊은 사람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을 때보다 생존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을까?

논문은 최전선 보건 노동자 등 팬데믹과 맞서는 이들에게 의료 장비나 치료에 대한 최우선적 접근권을 쥐어준다"고 말한다. 이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훈련이 필요하고, 교체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연구자들은 또 "팬데믹 속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거나 집중치료 병상을 필요한 다른 환자에게 주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며 "환자들은 임원할 때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논문에 기록했다.

에 달하고 자원이 한계점에 이를 때에만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많거나 기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선순위에 밀린 이들을 보면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코로나19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감염에도 더 취약한 건 이들이기 때문이다. 먹는 것과 입는 것, 씻는 것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려운 일이다.

한편 코로나19는 전 세계 수

백 곳의 요양시설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3분의 1이 요양시설에서 나왔다. 1주일 동안 2000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사망자의 4분의 1이 요양시설에서 나왔다.

노인을 지원하는 많은 단체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

영국의 고령자 자선단체의 대표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나이가 들면 건강 상태와 회복력이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모두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병원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이 돼선 안 된다."

장애인 단체들이 영국의학협회에 보낸 공개 한에도 "사회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영국 국민건강보험청보센터(NHS England)는 팬데믹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에선 의사들이 누구를 우선적으로 치료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은 항상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몇몇 주에는 팬데믹 이전부터 인공호흡기

부족 사태와 관련한 해결 지침이 있었다. 뉴욕타임스는 엘라 베마, 애리조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뉴욕,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유타, 워싱턴 주의 공개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들의 치료 우선순위 결정 방식을 살펴봤다.

그런데 일부 주에 신경손상, 치매 또는 에이즈를 가진 환자는 인공호흡기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는 문서가 있었다.

(11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담임목사 청빙

휴스턴 예담장로교회(PCA)는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청빙요건

- 1)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한 목회자 중 PCA소속 이거나 가입 가능한 분.
2)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가능하신 분
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미국내 5년이상 거주하신분
4) 목사안수 후 5년 이상 목회 경력이 있는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가족 소개서 및 사진 포함)
2) 목사 안수 증명서 및 노회소속 증명서
3) 신앙 고백서 및 목회 소견서
4) 학부 및 신대원(M.Div)졸업 증명서
5) 2분 목사님의 추천서(추천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포함)
6) 최근(6개월 이내)설교 동영상 2회분 file, Website link.
7)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보내실 곳

휴스턴 예담장로교회 청빙위원회
19946 SAUMS RD. KATY, TX 77449
TEL.FAX:832-321-5035

참고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이 안됩니다.
2) 문의 사항은 이메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weeklysportnews@gmail.com
3)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서류제출 마감 2020년 5월 30일

- 휴스턴 예담장로교회 청빙위원회 -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출판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His Finger)

천성은 있습니다. 천성에 가야합니다. 누구나 짧은 길면 이 세상에서 일생이라는 여정을 끝내면 영원한 곳에서 살게됩니다.



김성국 목사가 발행하는 이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여정에서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면 알라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시라 합니다.

히즈핑거 (His Finger)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위기의 때 진정한 오순절 신앙이 필요하다”

(1면에서 계속)

신학자 루시 페피아트(Lucy Peppiatt)가 최근 평한(Charismatic Christians, Crisis, and Coronavirus: Part III) 바와 같이, 오순절 크리스천들은 삶의 모든 측면에 하나님이 참여하신다고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명하신다고 확신한다.

일부의 견해이긴 하지만 이것은 오순절 신학의 변함없는 주제다. 시애틀 퍼시픽대학교의 신학 교수인 다니엘 카스텔로(Daniel Castelo)는 가령, 오순절 영성은 신비주의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퇴거의 신비가 아니라 중재와 중보의 신비다.

버밍엄대학교의 신학교수인 다니엘라 어거스틴(Daniela Augustine)은 그녀의 최근 저서 “성령과 공동선(The Spirit and Common Good)”에서 같은 점을 강조한다. “성령은 그리스도화 된 인간의 삶을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이는 수단으로서 고양시킨다...전 우주의 치유는 성화되고, 성령이 스며든 인간성 안에서 시작된다.”

말하자면 오순절 사역은 두 가지 마음, 곧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에 이르러자 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교에 이르는 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뤄진다. 이러한 신비주의는 교회 갱신의 원천이다.

리젠트대학교의 역사신학교수인 데일 쿨터(Dale Coulter)는 이런 일이 중세 흑사병 발발 후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여줬다. 그는 이 대유행병의 시기에 다시 한번 “목사들과 사제들은 영적 인도자가 돼 그들의 양떼가 내면으로 눈을 돌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COVID-19 AND THE SPIRITUAL LIFE).

오순절 신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예언자가 될 시대를 고대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 예언은 마술의 한 형태로서의 예언이 아니다. 참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그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는 지 아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참 예언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정말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른 일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며, 그래서 더 좋은 더 진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휼의 마음을 갖게 되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우리를 내면으로 인도해(신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성령은 또한 우리를 외부로 인도해(예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되는 사람들을 향하게 한다.

이 성령을 따라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 하

님의 빛이 이미 그 깊은 어둠을 깨뜨리며 솟아 나오고 있다고 확신한다. 바로 이것이 예언한다는 것, 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의 의미다.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하라

오순절 크리스천으로서, 그리고 오순절 신학자로서, 나는 과거와 현재의 우리 실패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르침과 실천의 위상과 영향에 대해서 던져야 할 어려운 질문들이 많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향수나 이상주의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은 오순절 영성과 신학이 처음 시작될 때 우리가 했던 그 진실한 방식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확신한다.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오순절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전통 가운데 있는 지혜를 잊어버렸다. 처음 시작할 때, 오순절 신앙은 가난한 사람들의 운동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운동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위기가 닥치면 언제나 가장 크게 고통당한다. 그래서 오순절 그리스도인들은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돌았을 때 그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한 세기 후에 오순절 신앙은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운동이 됐다.

그런데 미국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지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에서 떨어져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섬기도록 부름 받았던 사람들의 물질적, 영적 필요에서 손을 떼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에게 있던 가장 깊고, 가장 진실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아주사에서 처음으로 오순절 부흥이 시작됐을 때, 윌리엄 시모어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오순절의 능력을 다 모으면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더 많은 사랑을 모으지 못하면 그것은 가짜일 뿐입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들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만듭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오순절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말 중에는 어리석은 것도 많고, 해야 했지만 하지 못한 말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오순절 신앙이 있다. 신비적이고 예언적인 오순절 신앙이 그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다. 그리고 많은 성령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이 은사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바로 이 오순절 신앙이 이 위기의 때에 요구되고 있다.

시론

부모가 살아야 자식이 삽니다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해인가 학군이 좋다는 강남에서 아파트 분양할 때 가장 비싼 층이 25층 고층아파트에 5층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앞이 초등학교인데, 5층에서는 아파트 배란다에 망원경 설치해놓고 교실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느 때까지 자기 품에 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학교만 들어가도 어렵습니다. 부모보다 또래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을 더 행복해 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점점 부모의 품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휩쓸려 같이 마약하고, 같이 나쁜 짓하고, 안하면 왕따 당하는 그 안에서 어떻게 스스로 올바르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가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하는 현실적 고민이어야 합니다.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리고 가야만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들을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신앙적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은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적 가치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먼 길을 걸어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설탕을 지나치게 좋아해요. 건강에 나쁘다고 아무리 타이러도 제 애긴 듣지 않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간디 선생님을 존경해서 선생님께서 끊으라고 말씀해주시면 끊겠다는군요.” 간디는 잠시 소년을 바라보더니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보름 뒤에 아드님을 데려오십시오.” 먼 거리를 걸어왔기에 어머니는 약속했지만, 보름 뒤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애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지 먹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설탕을 먹지 않겠노라 약속한 아들을 보며, 고마운 뜻을 거듭 전하던 어머니는, 궁금한 것이 생각나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보름 전에 찾아보았을 때 그때 말씀해주시지, 왜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하신 건가요?” 간디는 말하기를, “사실 저도 설탕을 좋아합니다. 보름 전 그때는 설탕을 자주 먹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설탕을 먹으면서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설탕을 끊어야 했습니다.”

간디의 삶이 존경받았던 이유입니다. ‘양육’입니다. “교육, Pedagogy”와 “양육, Peideia”는 다릅니다. 부모가 거짓말하면서 아이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부모가 거짓말하면 자녀들도 거짓말합니다. 굳이 안 가르쳐도 부모가 정직하게 살면 아이들도 몸으로 배워 정직하게 삽니다. 부모가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 그렇게 안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라하면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자녀들이 “아빠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하며 콧방귀도 안 뀌니다. “또 아버지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엡 6:4) 그러나 부모들이 먼저 그렇게 살면,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자라난 아이들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양육, Peideia, Nurture”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6:4). 성경은 우리들에게 “양육”을 말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가정입니다. 부모의 삶입니다. 아이들의 삶에서 부모인 나를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은혜입니다. 부모가 먼저 성경해야 그 모습을 보고 커가는 아이들도 성경 탐니다. 부모가 먼저 찬송해야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그 모습을 보고 커가는 아이들도 기도합니다. 이것이 ‘양육’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통하여 아이들이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느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입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하는 대화 가운데 80% 이상이 “잘 잤니, 잘 지내니?, 밥 먹었니, 어디 안 아프니?, 무슨 일 없니” 등등이 끝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뤄지지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적잖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영혼에 신앙적 가치관을 삶을 통하여 나눌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요 축복입니다. 부모가 살아야 자식이 삽니다. 어린이 주일에 먼저 부모 된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은혜입니다. 문제 부모와 문제 가정은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잘 일구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양육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 가치관을 갖게 되는 복종의 복이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pastor.eun@gmail.com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반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 액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품전문
뉴욕(Tel. 718)762-0011
뉴저지(Tel.201)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경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검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 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의외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치아미백(엔플랜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광고문의: chpress.kjs@gmail.com info@chpress.net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리더십 석.박사 MBA, DL, Ph.D.
리더를 위한 전문 학위과정
34년 전통, 70여개국 동문들의 세계적인 네트워크
한국어, 영어, 특강, 온라인
미국유학 가능 (SEVIS I-20, J-1 Visa)
Graduate School of Leadership 리더십 대학원
M.B.A.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새 발간되는 크리스천 신문들을 인터넷으로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다. 신문 내용 중에 특별히 미국의 교회 지도자들의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에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측하는 내용이 내 눈길을 끌었다. 그 내용을 보니 그동안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열심히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것을 다

짐하는 목회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교회가 참으로 재정적으로 어렵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기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인들의 수평적 이동이 있어 어려워지는 교회가 많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는 교회도 생기게 될 것을 염려하는

의견들이 올라와 있었다.

이러한 주장들은 나름대로 이해는 가고 수긍할 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모든 교회에 적용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세워진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어떤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회가 얼마나 교회답게 사명을 가지고 지내왔는가'라고 생각된다.

2000년 동안 수많은 로컬 교회가 문을 닫았고 다른 교회들이 일어났다. 사명이 끝난 교회들은 그 지역에서 사라졌고 새롭게 사명을 받은 교회들이 지역마다 일어났다. 그러므로 내가 믿기로는 교회가 과연 이런 어려울 때를 잘 지날 수 있는가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교인들이 이동하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 교회가 과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불러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고 믿어진다.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나가신다고 믿어진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의 이동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지 말고 앞으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라고 판단되어진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된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이 재앙의 때에 단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님이 무슨 사명을 주셨나'를 생각할 때이고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를 생각할 때라고 여겨진다. 성경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 "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되돌아보아라'라는 말씀을 개역한글에서는 '생각하라'고 번역하고 있다. 더 잘 해석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그렇다. 곤고한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앞날의 계획을 세울 때라고 믿어진다. 그리고 그 계획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실 것을 믿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6:31-34절에 하셨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일은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을 간단히 해석하면 당장 무엇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 이유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의 사정을 한히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우리의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앞날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천부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계획을 세워나가는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이대우 목사

(필라한빛교회)



사람들은 누구나 크던 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것에 대해 남다른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별레만 보면 질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두려움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염려나 근심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두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대부분 큰 위기나 두려움의 순간에 초연히 담담히 대처했던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평상시 같으면 쉽게 해낼 수 있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땅에 있는 살췍이가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사냥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땅에서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발견한 살췍이는 순간 매서운 눈초리로 다람쥐의 눈을 응시합니다. 그러면 다람쥐는 스스로 두려움의 과정을 내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만 땅 아래 살췍이가 발 앞에 뚝 떨어져 먹이가 되고 맙니다. 피할 길은 얼마든지 있는 데도 말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에 포로가 될 때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의 인류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신, 오뚝이 정신으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미국 초창기에 청교도 102명이 보스턴 지역에 정착했지만 1년 후 50%가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진행하다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있어서 올라가서 능히 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낙자손들은 신

장이 남자가 평균 3m, 여자가 2.75m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절망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껏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주신 축복의 땅만을 바라보고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을 눈앞에 두었지만 얻기에는 너무나 난공불락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족했던 것은 시력과 산술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적과 싸울 때 적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알고 교만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나 너무 과대평

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에 더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신은 작게 보이고 오히려 자신이 직면한 문제만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성읍과 거민의 덩치를 보고 자신들을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진 환경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원망한다고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가하여 위축되고 약화되어 겁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약속과 보장 속에 일을 해오다가 해결하기 힘든 난관에 부딪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사업을 하다가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문제, 경제문제, 직장문제, 건강문제 등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솔직히 누구든지 제대로 서있기 힘든 어려움을 느끼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를 쳐도 여전히 이들은 평안합니다. 야의 나온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꼭 해야 한다고 하니 '담담하고 숨막혀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두려

움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불신을 낳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약5:19, 레19:18, 빌2:14) 이러한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회피하려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도망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어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압제와 두려움의 장소요. 종되었던 자리가 아닙니까? 싸움도 하기 전에 이미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목적이식이 흔들렸습니다. 내 힘을 의지한다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중들은 난관에 봉착할 때 두려워하며 당황하였고 낙심하고 실망하였습니다.

마사다는 세계적인 일본기업입니다. 일본 최고의 공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한 학생이 이 마사다 회사의 입사시험에 응모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합격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에 괴로워하던 그는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고 말았습니까. 그런데, 다음 날 그에게 전보가 한 장 날아왔습니다. 입

사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전산처리에 문제가 생겨 누락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 회사 인사부 책임자까지도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그 기업의 총수 마사다 고노스케씨의 반응은 전혀 엉뚱했습니다. "이 학생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가 이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좌절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봐서 그 학생의 정신적 자질은 매우 형편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학생이 우리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 올랐을 때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좌절하게 되면 그는 중독적이고 비극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까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될 것

세를 가지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숭한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적극적인 생각과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이제껏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10가지 이적 속에 자연을 다스리시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달리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며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진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와 같은 많은 약속이 있음에도 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바로 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인은 세상을 이깁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온 회중이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속에서 어려운 일 속에서 두려운 일들 속에서 혹시 하나님을 멸시하고 계시지는 않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가 곧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바라보시는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는 자, 그 믿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련은 믿음을 연단합니다(벧전1:17). 가나안의 축복을 소유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어 갔지만 오직 여호와와 갈렙만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았 습니다.

오직 믿음이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환경이나 대적자를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도리어 환란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시며 두려움을 몰아내고 늘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leedaewoo19126@gmail.com

“두려워 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1-10절

이 뻔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나 계획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짐을 빠르게 가져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은 앞드려 기도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고 담대하였습니다.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 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 또한 달랐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스스로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할 만큼 신장이 장대한 거민들에 대해 말하길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다르게 했을까요? 두려움에 떠는 그 때에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도리에 담대하게 적극적인 생각과 자

거대한 대적을 만났지만 난공불락의 성들을 대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대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십시오.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팔을 붙드십시오.

시편기자는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23:4).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1:9). 이사야 41:10절에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COVID-19에 대한 미국인들의 설문조사, Wake Up Call!

지난달 워싱턴 Examiner 에 나온 새로운 전국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 시민의 거의 절반은 이번에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Wake Up Call-일깨우는 콜"이라고 믿고 있으며 시민 3분의 1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주고 있는 "말세"로 본다고 반응했다는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설문 조사들은 Joshua Fund(조슈아 기금) 설문조사들 통해 이루어졌는데, 핵심적인 발견은 지금 미국 사람들의 심리적 분위기는 "하나님 또는 신"을 찾는 신앙 회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독교로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 내용 사실입니다.

약 44%의 미국 시민들의 조사 답변에 의하면 COVID-19 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들을 일깨우는 콜(a wake-up call for us to turn back to faith in God)"이며 "다가올 마지막 때 심판의 징후(signs of coming judgment)"라고 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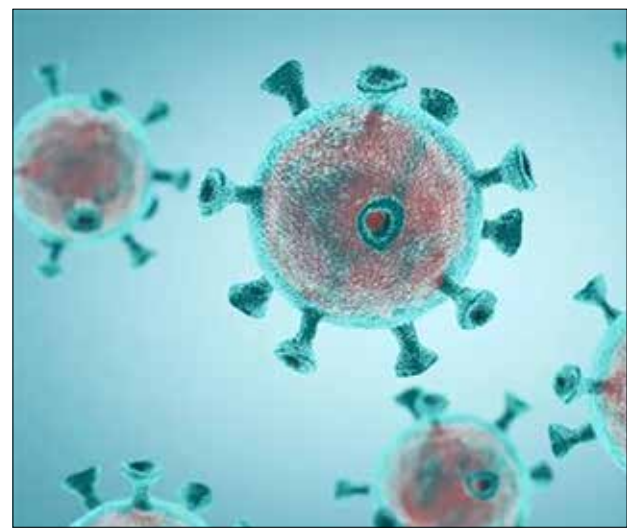
참고로, Joshua fund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일깨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스라엘과 그 주위에 있는 국가(10/40 window)를 축복'하며 전도하기 위해 설립된 자선단체입니다.

이 기금을 만든 Joel C. Rosenberg는 뉴욕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 그는 말하기를 "전국이 거의 잠금된 상태 속에 놓인 미국인들은 불안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성경, 기독교 설교에서 답을 찾아가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희망의 조짐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Wake Up Call"이라고 믿는 사람들:

△자신을 "세상적(secular)"라는 사람들 - 25% △유대인 미국인 - 42% △공화당 소속인 - 58% △민주당 소속인 - 41%(이중 34%는 스스로 극좌파, 47%는 중간좌파 민주당이라고 함)

말세 예측에 동의한 사람들: △유대인 미국인들 - 30% △민주당 소속인들 - 30% △공화당 소속인들 - 39%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 40% △



히스패닉인 미국인들 - 50%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McLaughlin & Associates 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이 '말세가 정말 가까워진 것 같아서 두렵다'라고 답했는데 Joshua Fund에서는 "29%가 이 위기는 '성경이 말하는 말세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설문 조사는 22%가 "난 non-Christian이야"라고 하는 비기독교인이었고, 40%가 기독교인 응답자로서 이 위기가 하나님과 영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초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로젠버그는 말하기를 "결과는 분명하다. 이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로 인해 미국인

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고, 평소에는 그렇지 않지만 성경의 예언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가르침을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가족과 더 많은 영적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통하여 미국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22%의 비기독교(self-identified Non-Christian), 25%의 무신론자(self-identified as a Secular

간혹 어떤 이들이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다"라는 매우 평범한 진리에 대해 새삼 놀라는 것처럼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삿17:6, 잠3:5-6)가 갑자기 깨닫지는 순간 또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지요.

또한 전도의 기회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동안 하나님을 여러 이유로 거부했던 친구, 이웃, 가족들이 있었다면 22%와 25%의 숫자에 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케빈 뉴섬 주지사가 얼마전 캘리포니아가 언제 오픈할지에 대한 계획을 4개 단계로 발표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오픈하는 것은 맨 마지막 단계인 Stage 4로 발표하며 날짜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 대응하고자 저희 단체와 미국 기독교단체들이 함께 지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전도하는 기회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오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Facebook이나 Tvnext.org로 가서서 보시기 바랍니다.

COVID-19의 상황이 세계적으로 점점 확산되면서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신기한 바이러스의 정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게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자신 있게 자랑하던 과학과 기술,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COVID-19을 온전히 그리고 신속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 사람들은 매우 놀라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오는 주일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19세기 낭만주의의 거장 빅토르 위고가 말했는데 본 받을만한 훌륭한 어머니에 대한 좋은 예화와 어머니를 잘 효도한 사람의 좋은 예화가 있으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파사데나 Han 교사

A: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 배후에는 훌륭한 어머니의 보살핌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국민들에게 인기와 절정에 달할 때 런던의 한 신문사가 처칠을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가르친 훌륭한 선생들을 조사해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했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읽은 처칠은 이런 메모를 신문에 보냈다고 합니다. "귀 신문사의 조사에 나의 가장 중요한 스승을 한명 빠뜨렸습니다. 그 분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 분이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결혼 전에 초등학교 선생 출신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그는 학교에 가서 끊임없이 질문하였습니다. 담임선생은 귀찮아했습니다. 담임선생은 "이 애는 저능아가 되어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고 편지를 써서 에디슨의 부모에게 보냈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은 에디슨을 "바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의 어머니는 정면으로 항의하면서 "내 아들은 바보가 아니오. 아마 천재일지 모르오..."

역사적 인물 뒤에 훌륭한 어머니 있어

선생님이 내 아들을 못 가르친다면 내가 가르치겠소." 에디슨은 학교에 입학한지 3개월 만에 "저능아"라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사실 에디슨은 암기위주의 교육보다 생각하고 추리하는 능력이 남달리 뛰어났는데 주입식 교육 위주의 그 당시 교육방법으로는 에디슨의 잠재력을 잘못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디슨 어머니는 아들을 집에서 끈질기게 가르쳤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에디슨 어머니의 위대한 점은 선생은 저능아라고 했으나 어머니는 아들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키워준 것입니다. 그는 백열전구를 발명하여 도시의 밤을 환하게 밝혔고 전화기, 선풍기, 냉장고, 전기세탁기, 축음기 등 1000개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어 인류 문화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수고와 인내가 아들을 위대한 발명가로 만든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 왕 앤드류 카네기는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온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책상보 행상을 하는 아버지의 수입으로 근근이 연명해가는 가세인지라 단반 내적으로 추운 겨울을 나야 했기에 내복을 세탁할 때는 어머니가 아들이 밤에 자는 동안에 빨아서 불을 피워놓고 말려 아침에 입도록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보다 못한 22살의 카네기는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누더기를 걸친 어머니에게 실크 옷을 해드릴 것 둘째, 하인을 몇명 고용하여 어머니의 일을 들어 드릴 것 셋째, 어머니에게 고급 마차(요즘으로 말하면 승용차)를 사드릴 것을 약속하고 이 3가지가 달성될 때까지는 결혼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는 바람에 52살이 되어서야 카네기는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어머니의 은공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보답을 한 효자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갑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후 6:00(토)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전 8:30 금요일: 오후 8:00 재일세무기도회: 오전 8:00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문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평일: 오전 10:30 수요일: 오전 8:00	벨뷰교회 담임목사: 박진중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45 E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보스먼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정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8:30 금요일: 오후 8:00 목회, 찬양: 오전 10:45 (주일) 오전 11:00, (일) 오후 8:00	삼빛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 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 예배: 새벽 8:00 주일 3부 예배: 오후 8:00 주일 4부 예배: 오후 1:0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찬양: 오전 10:45 목회찬양: 오전 10:45
시애틀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금) 토요일: 오전 8:30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은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권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4:00 수요일: 오후 7:30 목회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앵커리지델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영양회: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후 2:00 수요일: 오후 7:00	엘파소델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월-토)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7:3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 예배: 오후 2:00 수요일: 오후 8:00 목회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킬린온리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목회찬양: 오후 8:00 목회찬양: 오전 6:30(월-토)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1:00(월-토) 수요일: 오후 8:00 목회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토)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45(월-토)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30 수요일: 오후 7:30 목회찬양: 오전 8:30(월-토)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2:00 수요일: 오후 7:45 목회찬양: 오전 8:00(월-토)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709 Fax. (323)665-0048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374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동남아시아의 산(Shan)

산족은 주로 중국과 라오스, 미얀마, 태국에 자리 잡고 있는 몇몇 특별한 종족들로 이뤄져 있다. 중국 남서부의 윈난성에...



Kingdom)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파이족들은 중국항제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했다. 1949년에 공산정권이 들어서기 전 서서히 분리돼 각자 나름대로의 전통과 언어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삶의 모습

산족은 매우 친절하며 우호적이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사교적이며 진취적이다. 하지만...

더 사교적이며 진취적이다. 하지만 남자들이 아직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의 중심이 된다. 그들 대부분은 농부이며...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자들보다 교육을 덜 받는데, 소년들은 사춘기가 되기 전에 밭일을 시작하거나 아버지를 따라 장사...

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면, 많은 남성들은 버마인과 같은 사롱(sarongs, 치마의 종류)을 입고 마을의 불교사찰에서는 중국시간이 아니라 버마시간을 따른다.

산족은 많은 재미있는 구예전통을 가지고 있다. 한 예로 "지갑던지기 게임"이 있는데, 처녀는 자기가 호감을 갖는 젊은 남자에게 조그만 지갑을 던지고 그 남자도 호감을 갖고 있으면 지갑을 잡는다.

대나무 위에 지어진 산족의 전통가옥은 이제 더 이상 흔하게 볼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나 이엉, 알루미늄 지붕

의 대나무 가옥에서 살고 중상류층 사람들은 나무나 타일마루를 가진 시멘트 또는 벽돌가옥에서 산다.

주식은 쌀밥이며 가끔은 팔을 넣거나 달걀을 해서 먹고 파인애플 안에 담아서 먹기도 한다. 그들은 또한 육류, 닭요리와 다양한 야채요리를 먹기도 하고, 중국식 차, 맥주, 콜라나 다른 청량음료도 마신다.

남자들은 단추가 달린 셔츠와 바지 또는 사롱과 같은 치마를 입는다. 어떤 남성들은 팔과 가슴에 문신을 한다. 모든 연령층의 여성들은 피부가 햇볕에 타지 않도록 노랑색의 진한 화장을 한다.

은 북과 기타같이 생긴 현악기를 연주한다.

신앙

산족은 정령숭배사상(애니미즘)과 소승불교(Theravada)가 혼합된 신앙을 따른다. 화려한 불교사찰은 대개 고상식으로 지어지며 마을 중앙에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중국의 데홍 지역의 도시에서는 공개매춘이 흔하며 아편과 헤로인의 판매도 마찬가지다. 식수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심지어 우물의 물도 사용하기 전에 때때로 정수시켜야 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존 파이퍼, 코로나 관련 신작 출간

미국 복음주의권 대표적 목회자인 존 파이퍼 디자이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신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신작 '코로나바이러스와 그리스도'를 펴냈다.



파이퍼 대표는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길 기대했다.

그는 "하나님은 코로나19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 말씀은 견고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준다'."

이 비밀은 "코로나19를 멈출 능력이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주권자가 이 와중에 우리의 영혼을 지탱해준다는 것"이다.

책은 '하나님이 코로나19로 무언을 하려는가'에 관한 6가지 성경적 관점도 실었다.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줌' '그리스도 재림을 대비하라는 경종' '그리스도 가치에 따라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 '위험 속에서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 등이다.

첫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이번 주 투약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이번 주 미국 내 응급환자들에게 처음 투약된다.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의 치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렘데시비르 제조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대니얼 오데이 최고경영자(CEO)는 3일 미국 CBS 방송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미국 전역에 있는 가장 위급한 환자들에게 약을 배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정부와 협업해 어느 도시가 가장 취약한지, 어디에 있는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지 정한 뒤 이번 주 초 환자들에게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한 미식품의약품(FDA) 국장은 앞서 지난 1일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정맥주사를 통해 투약하는 방식에 한해 렘데시비르 사용을 승인 받았다고 발표했다.

전했다. 길리어드는 초기 생산분 약 150만병을 기부한 상태다.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는 치료에는 환자에 따라 5일 또는 10일 코스가 적용된다.

오데이는 "인류의 고통과 치료제의 필요성을 알고 있기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환자들에게 투약되는 데 방해가 될 요소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길리어드는 오는 10월까지 50만명, 연말까지 100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의 렘데시비르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최근 미 국립보건원(NIH)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는 일부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기간을 4일 가량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30일 내년 1월까지 수억개의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파우치 "코로나19 백신 내년 1월 가능"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30일 내년 1월까지 수억개의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파우치 소장은 자신이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부내 일명 '초고속 작전'팀의 일원이라고 전하며 목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 1월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 빨리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는 1단계인 임상시험의 초기 단계에 있다.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백신)이 효과가 있고 안전한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관련 회사들의 생산을 확충하기 시작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생산을 시작한 뒤 이 과정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생산을 확충, 바라건대 1월 시간표를 맞추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발 마스크라도..." 뉴욕주지사 호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미국 뉴욕에서 화장한 주말날씨가 이어지자 수많은 시민이 공원으로 쏟아져 나왔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3일 기자회견에서 "외부에 나가더라도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해달라"며 "책임감을 보여주려면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곳으로 꼽힌다. 사망자 수가 사흘 연속 300명을 밀도하는 등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여전히 압도적인 규모다.

특히 이번 주말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는 소풍 인파로 북적였다. 잔디밭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닥다닥 붙어있었고, 마스크를 낀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는 끝난 게 아니다. 그저 감소하고 있을 뿐"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활동으로 되돌아간다면 다시 급속히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384만건...

미국 노동부는 4월 19-25일 일주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84만건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 셋째 주 330만건으로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같은 달 넷째 주에는 687만건까지 치솟은 뒤 이후 661만건(3월 29일-4월 4일), 524만건(4월 5-11일), 443만건(4월 12-18일) 등을 기록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내 실업자가 6주 동안 3030만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코로나 탐지견' 길러 방역 투입

폭발물 탐지견, 마약 탐지견에 이어 '코로나 탐지견'이 나올 전망이다. 특수 훈련을 받은 탐지견들은



공함과 병원 등에 배치되어 방역 작업에 투입된다.

워싱턴포스트는 28일, 미국 연구진이 개를 훈련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탐지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토 센터장은 "정확히 바이러스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는 우리도 모른다. 개가 바이러스 자체에 반응하는지, 냄새에 반응하는지도 알 수 없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개들이 바이러스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프로젝트의 성공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오토 센터장에 따르면, 개의 후각은 매우 뛰어난 마약, 폭발물 등 위험 물질은 물론이고 말라리아와 박테리아, 심지어는 암까지 구별할 수 있다.

개를 활용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젝트가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개를 활용해 말라리아 감염자를 구별해내는 데 성공한 런던 보건대학원에서도 유사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제임스 로건 런던대 질병관리본부장은 탐지견을 '신개념 진단도구'라고 부르며 "코로나19 진단에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NYT, 김정은 견제에 "전세계 취약성 노출"

뉴욕타임스(NYT)는 건강 이상설에 이어 사망설까지 나왔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건재'를 과시한 데 대해 "세계가 북한에 대한 그릇된 정보에 대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2일 서울발 기사에서 "세계가 '불투명하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NYT는 북한에서의 권력 공백에 대한 인식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면서 "그릇된 정보는 한쪽 또는 다른 당사자에 의한 오판이나 의도하지 않은 (긴장) 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NYT는 "결국 김 위원장은 살아있고 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 매체의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에 대한 보도에도 "그런 보도를 확인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다시 등장했지만 지난달 15일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한 것을 비롯해 약 2주간에 걸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추측은 걱정스러운 사실을 불러왔다면 그것은 김 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실권할 경우 북한에, 또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마지막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라셀은 "핵무기와 정치적 분쟁의 조합은 전 세계에 있어 악몽의 시나리오"라면서 정치적 혼란은 분과 등 특정 세력이 핵미사일을 휘두르거나 발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는 2일 김 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전날 평안남도 순천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성직자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란 미술사가 등장한다. 그는 사람들이 놀랄만한 큰 능력을 지닌 자였다. 사도들이 안수하므로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이 일어난 현장을 목격한 그는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려고 하였다. 베드로는 시몬을 저주하며 하나님의 신물을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큰 죄악이란 사실을 지적하였다.

중세교회에 미술사 시몬의 이름이 매우 부정적으로 언급되었다. 성직매매 때문이었다. 성직자들은 일정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지식을 가진 자들로서, 개인마다 출신과 전공이 달라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중적 소명, 즉 내적소명과 외적소명에 의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므로 성직을 매매한다는 것은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신성한 권한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성직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다.

9세기경부터 시작된 성직매매가 유행을 타고 큰 문제가 되었다. 심지어 교황이 직접 나서 이를 저지해야 할 형편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성직을 팔는다는 것은 곧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다. 특히 로마의 황제들의 조직적 탄압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성도들을 섬겨야 했기에 일사각오의 순종과 결단이 동반되었다.

그러나 국가적인 보호 속에서 신앙을 지니게 된 결정적인 사건과 함께 성직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에 변화가 생겼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Constantine the Great, 272-337)가 종교의 관용을 골자로 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것이다.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이전에는 성도나 성직자 모두 가난한 삶을 당연시 하였다. 개인의 재산과 소유의 개념보다 서로 도우며 함께 생활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삼았다. 교회가 정기적 헌금과 재산 기부자들로 인해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자, 교회의 재산 중 일부를 성직자의 생활비로 지급하게 되었다. 성직자는 교회가 지불하는 일정한 돈을 받으며 사역하는 자로 인식이 바뀐 것이다.

성직록

생계를 꾸려가려면 물질이 필요하다. 성직자도 예외가 아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교회는 성직을 맡은 자가 물질의 부족으로 인해 사역에 지장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성직자는 지나치게 풍요하고 사치스런 삶을 포기하고, 물질이 주는 탐욕한 유혹의

손길을 과감히 물리쳐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부르심을 받은 성직의 성격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할 만큼의 물질이란 기준 자체가 매우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개인마다 씀씀이가 다르고 각 성직자의 가정이 처해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3년 이후에 초대교회가 변화된 이후부터 실천되어왔던 전통적인 방법을 소개하자면, 교회가 성직자로 하여금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타당한 액수를 정하여 지불하는 것이다.

각각 별도의 성직록을 수여하였다. 한 곳에 머물러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위한 성직록의 구분이 있었으며, 영구적인 것과 이와 대조적으로 권리를 넘겨줄 수 있는 성직록 등 그 종류가 다양했다. 모든 성직자들은 평생 소득을 보장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 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했다. 성직록은 성직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수직적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했다.

성직 매매

를 선발하는 과정에, 지역 유력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심지어 성직자를 직접 세우는 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레고리 7세는 성직자를 임명하는 일은 교회의 고유 권한임을 주장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히 4세(Heinrich IV, 1050-1106)와의 '서임권 투쟁'으로 발전되었다. 하인리히 4세는 세속 제후들도 성직자를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이 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감정적 대립가

매가 허용될 수 없음을 설명했다. 나아가서 그는 주교를 백성에 의해 사제는 주교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직 매매의 폐해

과연 11세기 이후 성직매매가 중단되었을까? 탐심을 지닌 성직자들과 세속 제후들이 지속적으로 이권다툼에 끼여들었다. 중세 후기로 시간이 흐를수록 매우 커다란 문제는 부상하였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교회가 개척을 시도하였지만 실패를 거듭함으로써 성직매매를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얀 후스(Jan Hus, 1372-1415)가 바라본 교회의 모습은 매우 절망적이었다. 그는 1413년에 '성직 매매론'이란 글을 통해 그 당시 왕성하게 자행되고 있던 성직매매에 대한 즉각적 중단과 함께 성경적 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는 성직매매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성직을 얻는 행위를 이단으로 정죄한다. 이는 영적 나병에 걸린 자만 가능한 것이며, 이런 죄는 타인에게 신속히 전염되기에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돈을 지불하고 성직을 얻은 자들 중에는 기본 신앙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허다했다. 다만 성직을 얻으려고 지불했던 액수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후스는 성직매매의 폐해를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성직자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접고 호화스러운 삶을 만끽하는 동안 교회가 지녀야 할 거룩한 모습, 즉 영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진 것이다.

성직매매의 대표적 인물은 이해관계 속에서 교황으로 선출된 이노센트 8세(Innocent VIII, 1432-1492)였다. 그는 누구보다 세속 정치에 깊이 관여하였기에 많은 정치 자금이 필요하였다. 교황청의 재정이 날로 악화되자, 교황청에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 매우 비싼 가격에 판매하였다. 과감하게 성직을 구입한 자들은 반드시 부자들이 아니었다. 남으로부터 돈을 꾸어 그 자리를 차지한 자들이 대부분이었기에, 그들은 결국 빚을 갚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금품을 끌어들이는 일에 집중하였다.

이런 악순환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개혁자들은 성직자의 자취 미달로 인해 교회가 겪어야 했던 폐해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직과 성직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쏟았다. 그들은 성직자의 소명의 회복이 진정한 교회 개혁의 출발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covenantcho@yahoo.com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9)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초대교회 이후 자연스럽게 성직자들 사이에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로마교회가 전통적으로 베드로의 계승자로 여기는 로마의 주교였던 교황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다. 교회의 최고사제인 교황 아래 고위 성직자인 주교들이 있었다. 주교들은 자신이 관

할하는 교구를 대표하였고, 주교가 파견한 사제들을 감독하는 일도 책임졌다. 사제들은 주교를 협력하는 위치에서 미사를 집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의무를 맡은 다수였다. 주교들이 교회의 재산을 맡았기에 사제들의 생활비도 그들이 지불하였다.

성직매매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신성한 권한 정면 부정하는 행위 성직자 독신제도법 규정 불구 16C 종교개혁까지 성직 매매 지속

스위스 종교개혁자 칼빈은 아들이 사제가 되기를 원했던 그의 부친의 노력으로 로마가톨릭교회가 제공하는 특혜를 받았다. '성직록(beneficium)'으로 불리는 돈을 받은 것이다. 성직록이란 용어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12세기부터는 교회에서 성직자에게 부여하는 물질적 혜택에 사용되었다. 칼빈은 11세부터 성직록을 수여받았지만 개혁적 마인드가 생긴 뒤에는 교황 교회로 돌아가 그것을 반환하였다.

중세교회가 실시하던 성직록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교구와 수도회는 있었고, 조금만 노력하면 부수입도 올릴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러므로 1074년, 교황 그레고리 7세(Gregory VII, 1015-1085)는 성직매매를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그레고리 7세는 소명과 전혀 상관 없는 자들이 성직을 차지하는 것을 저지하려 했다. 그는 성직자들이 자식이나 친척에게 세습하는 일과, 주교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격과 실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들에게 금전을 받고 자리를 허락하는 일을 큰 죄악으로 여겼다. 이로서 성직매매 금지와 함께 성직자 독신제도를 강력히 법으로 규정하였는데, 성직자가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재산을 축적하고 물려주려 한다는 것을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레고리 7세는 누가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예민한 사항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주교들을 포함하여 성직자

의 진리대로 교회를 섬기지 못할 것으로 확신하였다. 교회의 세속화가 진행된 지 오랜 상황에서 그레고리 7세는 역부족으로 인해 그를 쫓아내려고 작정된 하인리히 5세에 의해 강여지내다 1085년에 사망하였다.

성직 매매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행위보다 그 동기와 방법에 큰 문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레고리 7세 이외에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을 시도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다. 성실한 태도로 교회를 이끌었던 교황 레오 9세(Leo IX, 1002-1054) 역시 마인츠에서 모인 지역 공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성직매매 금지와 성직자 독신제도를 강요하였다. 프랑스의 추기경 훔베르트(Humbert of Silva Candida, 1015-1061)는 1057년에 '3권의 성직매매 반박론'을 기록했다. 그는 성직매매를 사도행전의 미술사 시몬과 연결시키고, 교회 또는 속세의 실권자들에게도 성직매

Worldwide church directory including: 동부(NY, NJ)교회, 뉴욕목장로교회,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별장로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센트럴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빛과소금교회, 퀸즈장로교회, 브라질 한인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하와이 행복교회,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브라질 서울교회,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멕시코 현지인 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하는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목회서신

“코로나 바다를 노 저어 가는 그대에게”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대 그리고 나 즉 우리 모두는 힘겨운 코로나바이러스 바다에 띄운 작은 고기잡이배를 타고 노저어가는 시간 속에 있는 듯합니다. 세계 200여개 국가 이상의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바다풍랑에 빠져 고생하고 두려워하고 정부지침을 따르면서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뒤덮고 있으니 가히 바다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고생의 바다를 지나고 있는 그대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이

소식은 나의 바램이지만 오늘 고난의 코로나바이러스 바다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절실한 희망의 소식이라 여겨집니다. ‘엘리트’이란 시인의 시처럼 잔인한 4월은 지났고 축복과 평안과 행복의 가정을 노래하는 5월을 우리 주님이 가져다주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바다를 향해 하는 우리에게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밤 사경

에 예수께서 바다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마14:25)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갈릴리바다 풍랑으로 고생하던 제자들을 구해 주시려고 그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오늘 그대와 나 우리 모두를 구해주시려고 코로나바이러스 바다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만 참고 견디면 곧 우리 주님이 우리가 탄 작은 그 고깃배위에 오르시며 동시에 바람과 풍랑은 곧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 지라”(마

14:32). 며칠 전 목요일 아침에 제가 모르는 어느 남자가 교회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던 중에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코로나바이러스도 해결해 주시니까?” 순간 저도 사실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바이러스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바다를 지나는데 우리에겐 오직 한 분 그분 예수님에게만 살 소망과 구원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나의 배에 오르시기를 구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풍랑 중에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행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와 나 우리 모두

에게 하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마14:27)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두려운 바다 위이지만 안심하기 어려운 바다 위이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함을 이기고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바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짐으로 다양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가정에 침적해야 하는 답답함 그리고 밖에 대한 두려움도 사업과 직장의 영업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의심하는 마음도 일어난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곤경에서 건져 구원해주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우리 곁으로 오시고 계

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리지르며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니고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고 우리를 건지러 바다 위를 걸어 우리 가까이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까이 그 주님을 향하여 소리지르며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급히 오셔서 즉시 건져 구원을 해주십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코로나바이러스 바다에서 건질을 받고 주님의 손잡고 그 손에 이끌리어 갈릴리바다에서 구원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간 베드로처럼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 줌과 평안이 있는 행복한 그대의 집으로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원하트미니스트리 온라인 워십콘서트 미자립교회 렌트비 후원...전세계 동시생중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미주지역 한인 미자립교회 렌트비 후원을 위한 온라인 워십콘서트가 열린다.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가 주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5월 15일(금) 오후 7시(미 서부 시간, 한국시간 5월 16일 오전 11시) 유튜브 채널 Ruach 호흡과 OneheartTV에서 전 세계로 생중계된다. 출연진은 원하트 워십 팀을 비롯해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 김브라이언, 정신호 목사 등이 함께한다. 메시지는 토렌스장로교회 고창현 담임목사가 전한다.



원하트미니스트리가 개최하는 미자립교회 렌트비 후원위한 온라인 워십콘서트 포스터

자립 교회를 후원할 수 있다. 또 콘서트 전, 후에도 원하트미니스트리를 통해 동참할 수 있으며, 후원금 전액은 미자립교회 렌트비 지원에 사용된다. 피터박 목사는 “사례를 교회 렌트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한 미자립교회 목사의 고백을 듣고 ‘일어나 함께 가져가는’ 아가서 2:11-13 말씀이 마음을 두드려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원하트미니스트리는 남가주 지역에서 음반제작 및 찬양집회, 공연기획, 경연대회 등 다양한 문화사역으로 교계를 섬기고 있다. ▲문의: (213)347-5080, myoneheartministry@gmail.com (기사제공: 원하트미니스트리)

“A Light at the End of the Road” 태평양법률협회 화상 컨퍼런스 열어

태평양법률협회가 지난 4월 초순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서부시간)에 ZOOM을 통해 화상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오후 2시에는 “A Light at the End of the Road”란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전문 변호사들의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피터 모스 목사는 “교회 출석자들이 온라인으로 여러 교회의 설교와 성경가르침을 듣고 있지만 지역교회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으며 대형교회에 이런 경우가 많다”며 “교회의 일군들을 동원해서 이런 이들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해 ‘도움 일이

없는가?’라는 쪽지를 남기면 문제가 풀린 후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 특별히 식품구매나 음식구매가 불가능한 이웃들에게 교회가 나서서 도움 수 있다”고 말했다. 모스 목사는 “교회 교인들도 돌봐야 한다”며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에게 전화나 화상통화를 자주해 소통해야 문제가 안정된 후 부담 없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기에 리더들은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에서는 현재 42개 주가 자가격리 명령을 시행중에 있는데 주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배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워싱턴 주는 파킵장 예배는 문제 삼지 않

며, 켄터키 주 루이빌시의 경우 온라인시스템 사용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주차장 예배를 허가했으며, 500달러 벌금을 물게 한 미시시피 주 그린빌시는 4월 14일자로 모든 벌금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전역에서 자가격리법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준비할 일들은 △교회 열기 전 총체적 청소하기. 특히 카펫은 샴푸하도록 한다. △입고 간 옷은 집에 와 세탁하고 계속 거리두기와 손 세척, 마스크 착용을 하고 예배 후 곧장 귀가한다. △예배후 스프레이를 뿌려 방역에 힘쓴다. △예배시 가족단위로 앉으면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등을 설명했다. 이날 본 협회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요즘은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 같더라 어렸을 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 매우 흡족하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로 인해 교회가 소송이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 본 협회 Kevin Snider 상임변호사는 “연방법원에서 이 일을 원만히 풀어가도록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과 대화중에 있다”며 “우리가 싫은 좋은 특별이기 때문에 각 주 정부와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권면했다. (박준호 기자)

한미특수교육센터, 발달장애가족 식료생필품 지원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장)는 COVID 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해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 Wang Globalnet 본사 주차장(2465 Fruitland Ave., Vernon, CA)에서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본 센터의 이번 지원활동은 Sempra Gas Company와 왕글로벌넷, 천하보험, 제니퍼장 법률사무소, 그리고 한미특수교육센터 이사진의 후원으로 쌀과 김치, 라면 등의 식료품과 마스크, 비누등을 무료로 배부했다. 동 센터 관계자는 “발달장애

를 가진 자녀를 둔 가정은 현재 학교교육과 치료가 중단된 상태에서 장애로 인한 자녀의 행동문제를 교사나 치료사의 도움 없이 부모님이 24시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애자녀를 데리고 마켓에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지난 20일과 오늘 지원활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한미특수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 가족위해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활동을 Wang Globalnet 본사 주차장에서 실시했다

를 가진 자녀를 둔 가정은 현재 학교교육과 치료가 중단된 상태에서 장애로 인한 자녀의 행동문제를 교사나 치료사의 도움 없이 부모님이 24시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애자녀를 데리고 마켓에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지난 20일과 오늘 지원활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미/니/인/터/뷰 버지니아제일교회 김제이 목사 부활주일 드라이브인 예배드려

어려운 이웃에 마스크와 세정제, 비타민과 식사나눔으로 사랑실천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며 교회가 굳게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 속에 많은 성도들이 지나간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버지니아제일교회(담임 김제이 목사)는 지난 부활주일부터 Drive In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본지는 김제이목사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교회 상황을 들어보았다.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버지니아제일교회(김제이 목사)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지난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주차장에서 Drive In 형식으로 드렸다.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자 개인의 차량에서 컨퍼런스콜 혹은 화상회의(Zoom)형식을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 정부방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날 예배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주차장에는 최소 인원만 유지하면서 새벽 6시 예배를 시작으로 8시30



부활주일 드라이브 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버지니아제일교회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구디백(Easter Basket)을 나누며 부활의 감사와 기쁨을 나눴다. 이날 김제이 목사는 “두려움 가운데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요20:15-19)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신다면 일어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면 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면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경배하십시오.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은 생명이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당신도 이제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서서 참 생명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다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피력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이번 Drive In 형식의 예배는 아이들을 비롯해 제 인생에 평생도록 기억에 남을 만한 은혜로운 예배였다”라고 감격해했다. 예배를 인도한 김제이 목사는 “오랜만에 만난 성도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이 사태는 반드시 끝날 것이며 조만간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의 음식나눔사역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좌) 마스크를 제작하는 모습(우)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마음을 전했다. 버지니아제일교회는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손길도 펼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과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성도들이 직접 마스크 만들고 손 세정제와 함께 나누고 있다. 또한 면역력 향상을 위한 비타민과 홀로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식사(반찬) 나눔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지난 3월로 31주년을 맞이한 버지니아제일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교회와 가정, 이웃과 세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며, 복

음을 전파하고 국내외 교회 및 선교지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 돌보는 섬김과 나눔의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예배와 교육, 선교와 섬김을 중요시여기는 핵심 가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심리학박사이기도 한 담임 김제이 목사는 워싱턴DC 지역 한인 라디오방송(AM1030)에서 17년간 상담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기증 방송 외에 추가 스케줄로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한인교포들에게 심리치료를 통해 큰 위로를 주고 있으며 최근 수요일 예배에서는 COVID-19 우울증 극복에 대한 특별 설교를 진행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알기쉬운 IT 칼럼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IT전문선교사)

After Corona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팬데믹의 정점을 치닫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확진자는 121만, 사망자는 6만9천을 넘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모든 모임을 중단한 채 주일 예배만 온라인으로 드린 지 벌써 두달이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사역자들도 많이 지쳐갑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적어도 한참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가 이 사태가 완전히 종결 될 때까지 기다리지만 있어야 할까요?

제 우려와는 달리 한인교회는 별 어려움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어려움을 극복하는 DNA를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특히 목사님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을까요? 교회는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열심인 성도들도 있지만 관계만 있으면 예배에 빠지려는 이들도 많습니다. 혹 이들에게 그럴듯한 핑계거리를 교회에서 제공해온 것만은 않은지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주일 분들을 통해 보니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카톡을 통해 누르지만 하던 라이브 예배가 나오도록 메시지를 보내주어야 하는데 그런 안내가 없으니 찾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기도입니다. 준비되지 않고 오래 하는 기도는 성도들을 떠나게 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를 드릴 때 할 수 없이 떠나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그렇지 않음을 정말 많이 생각하십니다. 지금이라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안내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만일 퀄리티를 높이려면 녹화를 하여 편집을 하여 내보내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는 물론 After Corona입니다. 주일예배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카타오 라이브북, Zoom 등을 통한 온라인 교제와 교육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멈추었던 성경공부, 새벽기도가 그렇게라도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스마트폰과 삼각대 하나면 됩니다.

새벽기도는 목사님이 교회든, 막대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라이브북으로 시작하십시오. 지금은 40명까지 일정이 가능합니다. 단 이것은 자료가 남지 않으니 비디오를 남기시려면 스마트폰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십시오.

성경공부는 Zoom을 이용하십시오. 배우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얽만 설치하면 됩니다. 교사들이 이것을 익히는 데는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어렵더라도 시작하십시오. 영적으로 떨어지기는 너무 쉬운데 끌어 올리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방법은 After Corona 이후에 교회사역의 중요부분으로 자리 잡아 갈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해야 합니다. 물론 본질이 변해선 안 되지만 형식을 본질로 착각해선 안 됩니다. 정말 변해선 안 될 중요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이, 방법이 변해야 합니다. 뉴스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우한에서 코로나사태가 심해져 모임이 통제되자 신천지는 온라인으로 성경공부와 모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주일예배 외에는 손 놓고 있지 않나요?

성경공부가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신천지 같은 이단이 그렇게 확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는 섬뜩한 소리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교회의 구분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목사님들이 온라인을 이용하여 성경공부, 각종 세미나 등으로 치고 나올 것이고 성도들은 그것을 아주 잘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든 열심인 성도들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할까를 생각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가르쳐 주기 위해 정말 미친 듯이 애를 씁니다. 설마고 도망가는 이들을 잡기 위해 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 과정 속에 생각하는 것은 누가 믿어 줍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도 전달할 방법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이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방송인데 구독자가 10만명이 넘었습니다. 아마 한국목사님 개인 유튜브로는 제일 구독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분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새벽기도를 대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내가 드리는 새벽기도인데 스마트폰 하나 가지하고 생방송으로 하던 녹화방송으로 하던 유튜브에 올리고 성도들에게 카톡으로 주소를 배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도는 정해진 시간에 동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교회도 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방법도... 그러기 위해 IT 활용에 대해 더 배우셔야 합니다. 더 열심히 돌겠습니다. 많이 나누기 위해 매일 무료로 배달되는 전자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슬랙2라고 검색하십시오. 가입하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다음날부터 매일 스마트폰으로 아주 쉽게 볼 수 있고 또 내용을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전자잡지 "슬기로운 IT 생활"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기사를 보신다면 성도님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꼭!!!

▲연락처: (909)971-7720
http://pf.kakao.com/_FmSzx/49581334
(909)971-7720, sjyoon7231@gmail.com

뉴욕교협 '국가 기도의 날' 참여

5월7일 오전9시-10시30분 온라인으로

뉴욕교협도 '국가 기도의 날'에 참여한다.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은 5월 7일(목) 오전 9시부터 10시30분까지 미 전역에서 동시에 열리는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회중 없이 설교자 송병기 목사(증경회장)를 비롯해 10여명의 순서자들만 뉴욕그레이트넥교회에서 모여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예정된 시간에 "뉴욕교협 국가기도회"를 검색하면 채널을 찾을 수 있다.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 기도회는 미국 각 지역에서 열리는데[본지 1775호 9면 참조] 뉴욕지역은 뉴욕교협이 주최하고 자마, 뉴욕목사회, 대한민국의찬가기도회 뉴욕지부가 주관한다. 또 평신도(이사회, 장로



연합회), 여성(미주한인여성목, 글로벌뉴욕여성목), 기도모임(목회자기도회, 사모기도회), 기타 교계기관(이민자보호교회, 청교도복음연구회) 등이 후원한다.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은 매년 5월 첫째 목요일로 제69회인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기도회가 진행되며 주제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렘2:14)"이다.

뉴저지교협(회장 장동신 목사)도 5월 7일(목) 오전 10시 온라인(유튜브)으로 기도회가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본지 1775호 10면 참조].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월례회 영상 진행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권케더린 목사) 4월 월례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9일 영상으로 진행됐다. 기아대책은 지난 3월 월례회는 열살바도르 황영진 선교사부부(양끝)와 현지인들 갖지 못했으며 팬데믹 이후 처음 월례회를 가졌다.



열살바도르 황영진 선교사부부(양끝)와 현지인들

이사항 장석진 목사 기도로 시작된 회무를 통해 선교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인들을 돕기로 했다. 또한 열살바도르 황영진 선교사와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두 선교지 한인 선교사들은 식량과 함께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날 동 기구는 1월부터 3월까지 지역했던 내용들과 회계보고를 했다.

지난 3월에는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가 사역하는 와야아 부족

와야아 부족 다목적 선교관을 위한 건축 후원금 7천달러를 송금했다.

1월부터 3월 회계보고는 △일 반회비: 수입 10,946달러, 지출 8,997달러, 잔액 2,149달러 △해외아동 후원: 수입 11,700달러, 지출 3,010달러, 잔액 8,690달러

이날 회무는 박진하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해외아동 결연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한 달에 30달러로 한 아동을 후원할 수 있다. 기아대책의 자세한 사역내용과 후원방법은 홈페이지(breadngospel.org)를 참조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의집에 후원금 줄이어

코로나19로 노숙인이 증가해 한 인노숙인 약30명 숙식을 제공해주고 재화를 돕는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 지난 1일, 웰터운영 지원금으로 무명 300달러, 어린이양육회 1000달러, 프라미스교회 2000달러, 뉴저지인자 선교교회(이영만 목사) 400달러, 롱아일랜드 P권사가 5000달러를 기부했다.



뉴욕나눔의집 박성원 목사가 P권사 후원금 5천 달러를 들고 기념촬영했다.

나눔의 집 대표 박성원 목사는 "P권사는 사회에서 소외된 여러

움을 겪는 이들의 사역에 처소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여유 있는 독서자들의 후원이 많아져 새 생활 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네이션 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 집)

패밀리터치, 식량 음식 나눔 행사

뉴저지 리틀페리에 위치한 비영리기관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5월 2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COVID-19 Sharing Caring Food Drive를 진행했다.

패밀리터치 청소년 서포터즈(Family Touch Youth Supporters) 주도로 계획된 이번 행사는 고등학생 봉사자들이 편 드레이징을 하고 학부모들이 차량 봉사자를 제공했으며 E-Connection에서 라면, 컵라면, 핫반을, C and J Brothers가 야채와 과일, 우지원씨와 우정훈씨가 메디컬 마스크를, Anby Lane에서 필터용 천 마스크를, Gim Fish Market에서 고등어를, 뉴질레니언뱅크에서 1,000달러, 그리고 익

명으로 기부된 쌀 100포를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전달했다.

패밀리터치는 앞으로 격주로 식량과 음식 나눔 행사를 펼칠 계획이며 기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패밀리터치는 현재 코로나사태로 인한 정서적 지원을 위해 COVID-19 상담 핫라인을 운영 중이며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핫라인: 월-토 오후 6시-오전 12시 502-414-4422)

자세한 문의는 (201)242-4422 www.familytouchusa.org info@familytouchusa.org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교계 게시판

조금씩 목사 별세

조금씩 목사(사진)가 코로나19로 투병하다 4월 25일 오후 11시30분 조지아 주에 있는 아들 집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고 조금씩 목사는 한국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했으며 뉴욕에서 뉴욕총현장로교회에서 담임목회를 하며, 뉴욕교협 법규위원장 등 다양한 교계활동을 했다.



홍효군 목사 별세

뉴욕교협 증경회장 홍효군 목사(사진)가 93세를 일기로 4월 2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 홍효군 목사는 뉴욕 롱아일랜드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1983년 뉴욕교협 9대 회장을 역임했다. 은퇴후 남가주로 이사해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창송 목사 별세

침례교 원로 이창송 목사(사진)가 97세를 일기로 4월 29일 오전 6시 뉴욕장로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 이창송 목사는 손순옥 사모와 2남3녀를 두었으며, 2남이 이선주 안수집사와 고 이선일 목사다. 1951년 중앙신학교를 졸업하고 54년 침례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한국에서 목회하다 1987년 도미, 뉴욕안디옥침례교회를 개척 목회하다 1998년 은퇴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미래자립(미자립) 교회지원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는 COVID-19로 어려운 "미래"자립(미자립)교회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지원대상은 건강한 교단에 속한 미주한인교회로 장년출석 50명 이하 미자립교회이며, 100교회에 1천 달러 1회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남가주사랑의교회 홈페이지(www.sarang.com)의 신청서와 교회주보이며, 5월 13일(수)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ZOOM으로 만나는 자녀교육 세미나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를 주제로 자녀교육 세미나를 화상Zoom으로 갖는다. 일시는 5월 5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미주동부시간). 커리큘럼은 Session1. 회복과 생명력 - 축복의 통로로 서기, Session2.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 커뮤니케이션, Session3.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시대, 다음세대의 비전과 직업, Session4. 스마트폰시대 미디어 분별과 정복, 중독 다스리기로 등록비는 40달러(젤라나 패이팔, 벤모로 입금할 수 있다).

▲문의: (646)300-4790 이메일 wooltarius@gmail.com

살롱장로교회, 교회 환경정리 박차

살롱장로교회(담임 나성근 목사)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영상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 제작팀과 교회 핵심 장로들이 교회 환경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교인들 스스로 잔디를 깎고, 정원수들을 깨끗하게 재정리 단장하며, 특히 코트 야드를 본격적으로 새롭게 꾸며 코로나 이후



야외 모임이나 결혼식, 야외음악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기사제공: 살롱장로교회)

뉴욕한빛교회, 뉴욕가정상담소 성금전달

뉴욕한빛교회 정원석 목사가 지난 28일 뉴욕가정상담소를 방문, 이지혜 소장에게 1000달러를 도네이션했다. 뉴욕한빛교회 성도들이 모금한 돈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돕는데 쓰여질 예정이라고 상담소 측은 밝혔다.



소 측은 밝혔다. (기사제공: 뉴욕가정상담소)

COVID-19 관련 주택대응담당자 임명 LA 카운티, 취약지역사회구성원 위해

LA 카운티는 COVID-19 위기 동안 길거리 노숙자들의 일시적 수용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감행하는 최고 경영 책임자로 Tiana Murillo를 지명했다. Murillo는 Sachi A. Hamai CEO 아래서 카운티 부서와 노숙자들을 위한 서비스 기획, 조정을 이끌고, LA 노숙자 서비스 당국을 포함, 파트너들과 협력해 긴급히 필요한 해결책을 제공했다. 해결책들은 △노숙을 하고 있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 격리 또는 검역장소가 필요한 자들을 위한 의료 보호소 △노숙자들 중 바이러스 취약계층이 실내에서 지낼 수 있는 임시 거

주처를 제공하는 Project Roomkey다.

이 프로그램들은 위기가 시작된 이래, 매일 9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했으며 더 많은 장소들과 수용 역량이 매일 더해졌다. 긴급하게 필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 프로그램은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 건강관리시스템 역량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임시 감독관으로 임명된 Murillo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120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 LA카운티)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1)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목사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총신대CA 총동문회장



올해로 미국청교도 이주 400년을 맞게 된다. 본지는 400주년 기념 특집으로 '청교도 신앙회복 및 부흥'의 글을 연재하며 청교도의 신앙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본 연재는 △청교도 개혁운동의 기원과 배경 △미국 청교도들의 정착과 확장 △미국청교도들의 정착 △청교도 사상의 신학적 원리 △청교도들의 다섯 가지 특징 △미국청교도 신앙회복과 부흥의 5개 부분으로 나눠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아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필자 김경일 목사는 총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레이스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북미주 선교사로 사역해오다 현재 총신대 캘리포니아총동문회 회장과 남가주행복찬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다. [편집자주]

서론(Introduction)

2020년 1620년 청교도(淸教徒, Puritan)들이 미국 신대륙에 이주해 온지 400주년 되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기념비적인 해이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이민 와서 세운 나라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최소의 화폐 단위로 1센트(cent)짜리 동전에도 '우리는 하나님 속에서 서로를 믿는다'(In God We Trust)라고 새겨놓았다(김종서, 미국 종교 흐름의 구조, p.1).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그의 책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에서 "바닷가에 내렸던 초기의 청교도들에게서 미국의 모든 운명을 내다볼 수 있었다"(Tocqueville, Alexis de, Democracy in America, p.279)그렇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아메리카 신대륙에 건너와 청교도 정신과 신앙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성한 나라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을 건설했다. 그들은 성경의 기초 위에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전수를 위해 가정마다 매일 2회씩 가정예배를 드렸다. 또한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며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으며 초기 설립된 대부분 대학들, 특히 1636년에 설립된 세계적 명문대학 미국 최초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의 교육이념은 목회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1620년 청교도가 들어온 뉴잉글랜드 지역 즉, 성경에 기초한 경건한 사회 '언덕 위의 도시(City upon a Hill)'를 대망, 지향하였으나 100여

년도 채 지나기도 전에 세속화, 부패, 타락한다. 그 당시 종교적 시대상황을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목사의 저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두드러진 표시(The Distinguishing Marks of a Work of the Spirit of God, 1741)'에서 쿠퍼(W. Cooper) 목사가 쓴 서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개혁교회들이 얼마나 죽어있었고 얼마나 메마른 상태에 있었는가. 황금의 소나기가 멈추었다. 성령의 감동이 중단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복음은 탁월한 성공을 전혀 거두지 못했다. 회심도 드물었고 정말 그러한 일이 있는지의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하나님

속화 시켰기 때문이다.

감사한 것은 역사적으로 미국이 영적으로 헤이해질 때마다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셨다. 특별히 미국의 독립을 앞두고 1734년과 1740년 전후로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와 조지 휘트필드(George Whitefield)가 중심이 되어 일어난 제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경적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게 하셨다. 그 영향은 미국 건국공신들(Founding Fathers)에 의해 독립선언서와 연방헌법이 성경의 원칙과 가치 위에 세워지게 되었

그렇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사33:12)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국을 신명기 28장 1-14절의 약속의 말씀과 같



1620년 최초의 이민선 메이플라워(May Flower)호

미국 근본적 보편적 가치관 형성해온 청교도 사상
팍스아메리카나의 강력한 지배력과 통치로 이어져

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그 것처럼 깨어 있거나 뜨겁거나 규례 등을 통해서 새로워지지 않았다. 이것이 수년 동안 이 나라에 사는 우리들의 서글픈 신앙 상태였다"(D. M. Lloyd-Jones, The 1Puritans, The Banner of Truth Trust, p.362).

그 이유는 첫째, 1669년 영국 왕 제임스2세의 개입, 즉 지배권 강화를 위해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자치정부를 부정하고 왕이 임명한 총독 파견과 모든 시민들에게 참정권 부여 둘째, 타종교에 대한 관용적인 종교적 다원화로 타종교인과 이교도들의 대량 유입 셋째, 유럽으로부터 계몽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등의 영향으로 성경 중심의 청교도 신앙을 회색, 세

고, 1776년 7월 4일 독립국가 미국을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영광과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하였다.

19세기 초 사무엘 밀즈(Samuel Mills)와 4명의 젊은이가 주도한 윌리엄스대학(Williams College) 건초더미기도회(Haystack Prayer Meeting)운동이 일어나 대학가에 선교의 불이 붙었다. 그들을 파송하기위해 1886년에 학생자원선교운동(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SVM)이 시작된다. 이 선교운동을 통해 약 50년간 20,500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을 포함 전세계 대양 육대주로 파송되어 성육신(Incarnation)적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는 '복음의 황금기'를 이루게 된다.

이 각종 분야에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미합중국(美合衆國)에 부여하셨다. 미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 특히 미국은 기독교의 보호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국, 세계의 경찰역할을 잘 수행하며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미국의 정치 종교상황은 청교도 선조들의 신앙과 건국정신이 배척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하나님과 십계명 제거, 공립학교에서의 성경공부와 기도금지, 반면에 동성애, 낙태 찬성교육, 대학들은 하나님을 떠난 무신론자들이 장악, 메스미디어들의 반기독교화, 최후의 보루였던 부모로부터 받는 신앙교육

과 가정예배마저 사라졌다.

그 원인은 강제할 수 있는 법(法) 제도화에 있다. 그런 면에서 무신론(?)적 종교인들인 제35대 케네디와 제43, 44대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의 영향이 지대하다. 그들은 연방대법원과 국회에서의 반기독교 입법, 그리고 행정명령을 통해 공립학교를 비롯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떠나 동성결혼과 낙태의 합법화를 비롯한 각종 반기독교, 비성경적, 법률 제정 등등..., 특히 오바마 전대통령은 동성애 전도사(?)를 자임하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반타락(?) 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최근 현 제45대 트럼프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현재까지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미국의 강력한 지배력과 통치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청교도(淸教徒, Puritan) 정신, 즉 신앙이라 말할 수 있다.

하버드의 페리 밀러(Perry Miller) 교수가 "청교도에 대한 이해 없이는 미국에 대하여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처럼 미국의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관을 형성해온 것이 바로 청교도 사상이라고 했다(Perry Miller, The American Puritans, p.1).

또한 리처드 슈래터(Richard Schlatler) 교수는 "미국의 정부, 종교, 교회와 국가 관계, 교육과 학문, 문화와 예술, 가족생활, 관습, 도덕, 그리고 모든 문화의 철학적 가정에는 청교도의 검인이 찍혀 있다"라고 청교도들의 절대적 영향력을 말했다(Richard Schlatler, The Puritans, p.26).

청교도(淸教徒, Puritan)란 로마카톨릭교회의 '교황 중심주의'로부터 독립한 영국(England) 국 교회(성공회) 안에서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의 성경중심, '복음중심' 개혁을 추구한 영국의 개신교도들(Protestants)을 가리킨다. 이들은 영국의 종교개혁이 카톨릭교회의 잔재, 즉 영국 국 교의 정부 중심의 성향과 교황청의 제도중심주의를 철폐하고자 했다. 이들은 도덕적인 순수성을 추구하여 낭비와 사치를 배격하며, 근면을 강조하였고 영국의 중산층을 형성했다.

청교도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을 바탕으로 개혁주의(改革主義, Reformed Tradition, Reformed Protestantism)신학을 증거하고 있다. 또한 청교도들은 신학적으로는 인위적 권위와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 철저하고자 한 전통 복음주의인 성서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다. 영국왕과 국교회인 성공회가 핏박을 하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여 성경의 가치와 원칙 위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의 기초를 쌓았다.

kimjoyh@gmail.com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공립학교에서의 기도회를 부활(01.16.2020) 시키는 등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고 있으나 "인본주의적 세속화"란 시대상황의 대세 속에 쉽지 않다.

그러므로 청교도 미국이주(Migration) 400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한번 신앙사수를 위한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정신으로 성경적 "청교도 정신과 신앙회복 및 부흥"(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의 대각성이 너무도 절실한 종말론적 시대상황에 있다. 이에 필자는 미국 청교도 신앙 회복과 신대륙 정복사의 두 가지 과오(Peccability)인 인디언 전쟁과 노예제의 공과(功過)를 객관적으로 논술 조명하고자 한다.

1776년 7월 4일 영국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신생국가로서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뇌막염

여름철 감기 증상과 유사한 초기 증상

여름철 감기 증상처럼 시작해 심한 두통과 고열증세가 나타나면서 뇌압 상승으로 구토

를 보이는 질환이 뇌막염(meningitis)이다. 뇌막염은 말 그대로 뇌를 싸고 있는 뇌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뇌 기능은 정상이다. 뇌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뇌염(encephalitis)과는 구별된다.

- 20대 초반의 유학생 정 모씨는 일주일 전부터 온몸이 쑤시는 몸살 증상을 느꼈다. 처음에는 감기 몸살로 생각하고 타이레놀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었고 사흘 전부터는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열이 계속되었다. 또 속이 메스꺼웠고 목 뒤가 몹시 빠근했는데 통증은 기침할 때 특히 심했다. 통증이 너무 심해지자 정씨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정씨의 혈압과 맥박은 정상이었

고 체온은 39.0도로 고열이었다. 응급실 당직 의사의 검진에서 정씨는 뒷목이 매우 경직되어 있었고 수막자극 증후(meningeal irritation sign)가 보였다. 뇌단층촬영 검사상 이상소견은 없었지만 뇌막염이 강하게 의심 돼 뇌척수액 검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바이러스성 뇌막염으로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증상치료를 받고 일주일 안에 호전되어서 정상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었다.

뇌막염은 원인 균에 따라 크게 세균성과 비세균성 뇌막염으로 나뉜다. 세균성 뇌막염은 상대적으로 진행이 빠르고 조

기 치료에 실패하면 뇌수종(뇌척수액의 흐름이 막혀서 뇌실이 커지고 뇌압을 상승시켜서 각종 뇌 손상을 일으킨다) 등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세균성 뇌막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뇌척수액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비세균성 뇌막염의 원인은 바이러스나 결핵, 진균(곰팡이) 등에 의한 것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는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 증상치료만으로 완치된다. 가장 흔한 것은 엔테로바이러스고 그 외에도 다른 많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뇌막염이 생길 수 있다. 결핵성

뇌막염은 미열이 1-2주 이상 계속되다가 뇌막염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때 치료가 늦어질 경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결핵균이 다른 장기로 퍼질 수도 있다.

뇌실질에 염증을 일으켜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뇌염은 뇌막염과 달리 초기에 이상 행동이나 성격 변화, 감각 및 운동신경의 이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의식의 소실과 경련이 일어난다. 뇌막염과 뇌염은 면밀한 병력과 검사로 구별이 가능하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예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2면에서 계속)

앨라배마 주는 "심각한 정신지체, 발달된 치매 또는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가진 사람들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해도 효과가 적을 수 있다"고 썼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의 평균수명은 70대 정도이고, 상당한 신경손상을 가진 이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기록했다. 10년 된 앨라배마 주의 지침은 미국 장애인권리단체들의 반발에 대적했다. 미국의 장애인단체들은 팬데

믹 기간에 장애인들이 직면한 "치명적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전국장애인협회(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회장인 닐 로마노는 "모든 삶은 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각주는 의료 인력의 치료를 뒷받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이들의 시민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한편 영국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the National Insti-

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이 3월 21일 65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삼관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1(적합)부터 9(말기)까지 측정되는 임상적 취약점 척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객관적이라 해도 문제는 있다. 예를 들어 노쇠척도(Frailty Scale)는 식사나 계단 이동과 관련해서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런던의 한 병원 의사는 BBC에 노쇠척도 같은 평가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 말했다. 한 환자가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추지

않고도 얼마나 많이 걸을 수 있는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 환자는 인공호흡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가족들과 통화를 해보니, 환자는 평소 상태가 아닌 문답상황 당시의 상태로 답을 했었다. 그날 밤 늦게 환자는 삼관을 했다.

의료진이 당면한 어려운 결정을 돕기 위해 전 세계 보건당국과 병원이 유사한 지침을 만들고 있다. 의료진은 인명을 구하려 한다. 하지만 치료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내가 병에 걸리면 어쩌나'하는 불안감도

갖게 만든다. 이러한 결정이 의료진의 정신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의사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수년간 훈련을 한다. 일부 환자는 치료하고 다른 환자는 치료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그 어떤 의사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디 바르톨로메오에 따르면 일부 의사들은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병가를 내기도 했다.

물론 치료할 사람과 구할 수 없는 사람을 정해야 했던 적이 없었던 건 아니다. 전염병의 의료진은 이런 선택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결정이 더 쉬운 것은 아니다. 엘튼은 앞으로 의료 전문가들을 위한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했다.

"이 문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이 시기에 좋은 사례가 나와서, 의료 인력을 지원하고 돌보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어떤 삶에 가치를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방식을 개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교회 창안 '코로나 아이디어' 확산

다양한 사역위한 콘텐츠 개발성과...발전기회로 삼아야

실시간 영상예배, 드라이브 스루 심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교회가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들이 사회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 강의를 위해 목회자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과제를 전달하는 교사도 있다. 기독교 콘텐츠의 과급력을 확인한 만큼 코로나19를 계기로 교회가 이들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훈 한주교회 목사는 예배 영상 실시간 중계 방법을 유튜브에 소개했다가 초등학교 온라인 교육 강사로 초빙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 총회미래전략개발원 교육팀장인 그는 지난달 18일부터 유튜브와 총회 홈페이지에 온라인을 활용한 예배와 소그룹 활동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왔다.

얼마 후 초등학교 6곳에서 강의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 그중 3곳을 직접 방문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방법을 설명했

다. 교사들의 반응은 좋았다. 질문이 이어지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가까이 강의가 연장됐다.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는 강의를 토대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 뒤 모범사례로 꼽혀 20여개 언론사가 취재를 하러 왔다.

김 목사는 "교회의 교육 방식과 콘텐츠를 보여줬을 뿐인데 교사들 모두 놀라워하고 그 방식을 인정하며 존중해줬다"며 "교회의 교육과 콘텐츠의 질이 높으면 사회에서 얼마든지 본받고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회에서 활용한 '드라이브 스루 심방'이 그대로 적용된 교육 방식도 등장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로 오는 게 아니라 교사가 직접 학생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식이다. 서울 관악구 영락의료대학교는 지난 21일부터 드라이브스루 면담을 진행한다. 교사들이 차량으로 학생들 집 앞을 찾아가 짧게 인사를 나눈 후 비타민과 과자, 편지 등이 담긴 선물꾸러미를 전달한다.

경기도 안양 새중앙교회(황덕영 목사) 등이 해운 드라이브 스루 심방과 같은 방법이다. 새중앙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교역자들이 직접 학생 성도들의 집 앞으로 찾아가 선물꾸러미와 기도 제목을 나눠줬다. 이후 여러 교회가 이 방식을 빌려 등학교는 강의를 토대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 뒤 모범사례로 꼽혀 20여개 언론사가 취재를 하러 왔다.

김윤민 부목사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먼저 고민하며 시도했던 사역이 다음세대를 야기하는 마음과 맞아떨어지면서 널리 활용되는 것 같다"며 "온라인을 통해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는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역에 접목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회자들은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교회 콘텐츠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훈 목사는 "과거에는 교회의 문화적 콘텐츠를 사회에서 많이 차용할 정도로 교회가 앞서갔지만, 최근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이 시대의 소통 방식이자 언어인 온라인을 충분히 활용해 복음을 전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교회의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자 사면복권...대통합의 길로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 실행위서 중재안 제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이 교단 내 갈등을 일으킨 관계자의 사과와 사면복권을 통해 분열 대신 화해와 대통합을 선택했다.

예장백석은 27일 서울 서초구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41회기 징계자와 재판에 불복해 탈퇴한 목회자 모두에게 사면 및 복권 결정을 내렸다. 탈퇴자들이 오는 7월 말까지 총회로 복귀할 경우 조건 없이 수용키로 했다.

교단에선 최근까지만 해도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9월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특별재심원이 갈등과 분쟁에 연루된 인사 전체에 대한 징계를 총회에 건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종현 총회장이 이날 실행위에서 화해 중재안을 제시하고 전국 노회장들을 설득하면서 대타협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건의 중심에 섰던 인사들의 사과가 있었다. 진동은

목사는 "교단 창립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그 가운데 많은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지난 회기 모든 일에 대해 먼저 사과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직전 총회장 이주훈 목사도 사과와 자숙의 뜻을 밝혔다. 이 목사는 "총회의 모든 사건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2년간 자숙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교단 내 모든 공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예장백석은 지난 회기 이전 총회장과 임원회가 대립하면서 제명·면직 처리가 잇따랐다. 이후 고소·고발전으로 번지면서 분열상황으로 치달았다. 총대들은 지난해 9월 이를 수습하기 위해 교단 설립자인 장 목사를 총회장에 추대하고 성경적 해법을 요청했다.

장 총회장은 "분열을 수습하기 위해 당사자를 징계하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당사

자의 진정한 사과와 회개가 있다면 십자가 사랑으로 용납해야 한다.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 용서하는 것이 신앙이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추구하는 십자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사에서 분열은 가장 큰 죄악이다. 교단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도 먼저 회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지난 회기 총회가 겪은 어려움을 생각하면 분열 당사자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징계보다 총회 화합과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합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교단의 이번 결정으로 교단 총회장을 지낸 유만석(수원 명성교회) 목사와 전 부총회장 박경배(대전 송충장로교회) 목사 등 전직 임원과 제1기 재판국원 등이 모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교단 관계자는 "사회법 소송과 갈등이 난무하는 교계 상황에서 분열 당사자의 사과와 자숙, 구성원들의 용서와 화해로 대화합을 선택한 백석총회의 결정이 좋은 선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난 코로나 난민” 발 묶인 선교사들 한숨

선교지 입국금지, 항공편 못 구해 한국체류 길어져 실업상태

“하늘 길 열리고 잠비아에서 코로나 재난상태가 풀리면 바로 가야죠. 한국에서 저는 난민이에요.”

국제SIM선교회 소속으로 잠비아에서 사역하는 박성식 선교사는 지난해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들어와 올해 초 잠비아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행기편을 구하지 못해 발이 묶였다. 박 선교사는 29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스스로 '난민'이라 칭하며 허탈하게 웃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28일 현재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83개국이다.

한국에 들어왔다가 코로나19로 선교지 입국이 금지됐거나 비행기 편을 구하지 못한 선교사들은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실업' 상태가 됐다. 일부 선교사는 선교비 지원까지 끊겼다.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 심리적 압박까지 커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교사들이 많다.

중국에서 사역하다 자녀 비자 문제로 지난 2월 귀국한 A

선교사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역지를 비워둘 수가 없어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주위의 만류에도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중국이 한국인 입국을 막고 있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없다.

파송 예배까지 드렸지만, 사역지에 가지 못한 신입 선교사들도 있다.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소속 이하는 선교사는 "지난 2월 저를 포함해 4가정이 파송 예배를 드렸다"면서 "비자를 받기 위해 인도대사관으로 가는 도중 대사관으로부터 업무가 중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엔 화도 나고 답답했다"고 말했다.

이 선교사는 지난 3월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한국에 머무는 한 가지가 없는 상황이다.

재정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교단 파송 선교사는 교단의 지원 체계가 있어 나은 편이다. 이 선교사도 고신교단이 파송 교회를 대신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선교단체 후원으로 파송된 A선교사는 선교비 지원이 최근 중단됐다.

A선교사는 "지난달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을 이해하고 선교기관에서 선교비를 줬는데 이달부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선교비를 받을 때는 마음만 불편했는데 이제는 물질적 부담까지 커졌다"고 호소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사들은 각자 한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 성령의마람선교단 소속으로 인도에서 온 윤석호 선교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역지 주민들을 만난다. 박 선교사는 선교사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강연을 한다. 이 선교사는 KPM 업무를 도우며 행정 실무를 경험하고 있다.

총신대, 입학정원 27명 감축안 확정

신학과 12·교회음악과 7·중독재활상담학과 3명 포함

총신대(총장 이재서)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로 2021학년도 정원 감축안을 확정했다. 총신대학교평의위원회(이장 이춘복 목사)는 지난달 29일 입학정원 27명을 감축하는 학적 개정안을 가결하고 교육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체 평가에 따른 감축안에는 신학과 12명, 교회음악과 7명, 사회복지학과 3명, 중독재활상담학과 3명, 아

‘라퓌타 도서관’ 에서 독서 습관 길러요

유튜브 교회교육연구소, 인문고전에서 뽑은 기독교치관 제시

지난 3월 중순 오픈한 유튜브 교회교육연구소에는 음악 명화 문학 등을 매개로 다음세대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하는 콘텐츠들이 있다. '라퓌타 도서관'은 인류 역사를 빛내고 수많은 사 람을 변화시킨 작품을 통해 작가와 대면하고 작품에 담긴 기독교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명화 속 성경이야기'는 고트 카라비츠 펠트란트 등 기독교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성경적 메시지를 조명한다.

최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

에서 만난 박양규 삼일교회 부목사는 "4차혁명시대를 살아갈 다음세대가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교육이 절실한데 현재 교회교육에서는 이 부분이 약하다. 주입식 성경 교육보다 다음세대가 흥미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회 교회학교 교육 디렉터로 섬겼던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교회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현실을 보면서 온라인에서도 다음세대와 소통하고 이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전하는 콘텐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지난해부터 교구 사역을 하는 박 목사가 나머지 시간을 쪼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이유다.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에 교회 성도들도 동참했다. 성우 음향 감독 등이 콘텐츠 제작에 함께 했다. 박 목사는 콘텐츠 기획과 대본 작성 등을 맡았다.

교회는 그동안 '클래식 예배' '명화로 보는 성경이야기' 등 온 가족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인문고전에 녹아있는 성경적 가치를 뽑아내 다양한 형태로 접목했다. 새신자 전도 초청 행사도 음악회로 기획해 신선하다는 반

응을 얻었다.

박 목사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어 왜 인문학을 도구로 사용했을까. 그는 "아이들에게 사명리를 가르칠 때 '이 신정의' 같은 용어를 아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그림 음악 등을 도구로 복음을 제시했을 때 아이들의 이해도가 높았고, 학부모들이 꾸준히 요청해왔다. 대만 일본 등에서 단기 선교를 했을 때도 이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했을 때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라퓌타 도서관은 기독교 작가의 세계관과 작품을 소개하고 마지막 성경적 관점으로 질문해 어린이들이 생각하도록 한다. '라퓌타'는 아일랜드 태생의 소설가이자 목사인 조너선 스위프트의 책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하늘을 나는 섬의 이름이다. 이곳에는 수학과 음악 등에 혈안이 되어 비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코로나19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박 목사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자녀 양육의 방법을 물었다. "자녀들이 책을 읽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독서 습관이 생기면 성경을 접하는 것도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라퓌타도서관에서 제시하는 양서를 매주 1권씩 읽으면 고액 과외가 아니라도 사고의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낮은 곳에 더 짙은 '코로나 블루' ...소리 없는 비명 커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정신 건강에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경제적 충격이 더해지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심리적 위기를 맞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릴 수 있는 만큼 변화한 상황에 맞는 적극적 관리, 생명에 대한 가치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코로나 블루, 우울 바이러스로 확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10명 중 4명(42.5%) 이상이 우울 경험의 정상 범주를 벗어났다. 특히 중증도 이상의 우울 위험군은 17.5%로, 2년 전(3.8%)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면서 심리상담 전화도 늘었다. 지난 1월 29일 꾸러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의 누적 상담 건수는 16만4000여건(4월 2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달엔 일반인과 자가격리자의 상담 건

수가 7만7082건을 기록해 1~3월 누적 건수보다도 많았다. 확진자와 가족의 상담은 확진자가 급증했던 3월에 1만36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상화로 사회적 관계가 느슨해지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줄고 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우울할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다'는 답변은 68%에 그쳤다. 지난해 조사에서 86%를 보인 것에 비하면 코로나19가 무려 18%포인트를 끌어먹은 셈이다. 도움을 청할 기관 있다는 답변은 38%에 불과했다.

멀어진 사회적 거리, 심리적 안전망 붕괴로

전문가들은 우울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지난 9일 인천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 입국한 후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던 A씨(22)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가족에게 격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중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한국은 사회적 관계지수(수)가 OECD 국가 중

‘코로나19’ 고조되는 심리적 위기, 고립되는 취약계층

최하위'라며 "우울과 불안은 높아지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로 인해 위기에 빠진 사람을 제때 치료하지 못한다면 위험도는 급격히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사회적 타격에 경제적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후폭풍이 우려된

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3월 18일 제주에서는 실종됐던 중증 자폐성 장애인 B군(18)과 어머니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달 29일 대구에서는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돼 월세 내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던 50대 자영업자가 도심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박중의 강원대 정신과 교수는 "지금은 각 영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 대응하며 버티고 있는데 시간이

신앙적 격려가 곧 게이트키퍼

지나면 경제·사회적 취약점이 드러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이나 방어막이 붕괴하면서 자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앙적 격려가 곧 게이트키퍼

전문가들은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취약계층이 고립되지 않도록 종교계와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박한선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는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살률이 5배 낮은 연구 결과가 있다"며 "종교 모임을 비롯한 지역사회 기반의 모임을 통해 '혼자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성돈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 대표는 "예전에는 특정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자

살 고위험군에 속했다면 앞으로는 누구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 속 게이트키퍼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기독교계가 발전시킨 온라인 콘텐츠를 '비대면 격려'에 적극 활용하고 화상 모임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등 심리적 거리를 좁힌

다면 게이트키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위험군 적극 발굴, 맞춤형 지원 필요

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살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은진 수원원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홀몸노인처럼 사회 관계망으로부터 고립된 경제적 어려움을 맞게 된 취약계층이 자살 고위험군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며 "경제적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센터장은 "우리나라 자살 예방법에는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에 구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압도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경중에 따라 치료시설을 나눠 생명을 살린 것처럼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지자체가 지역 교회,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선교의 창 (145)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환난의 때에 일대일 사역을 통한 선교 돌파

Covid19의 기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고 있다.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행사는 거의 다 취소되었다. 심지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까지 연기되었으니 무슨 말을 더하랴! 목회와 선교도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들을 경계하며 피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저마다 인터넷을 통해 예배와 교육을 시도 하지만 그 한계성을 뛰어 넘을 수 없다. 속담에 치명순역지(齒亡唇亦支)란 말이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뜻이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다. 굳이 전통적인 회중중심의 대예배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방안을 사역의 근간으로 도입하면 된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으라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일대일 사역은 평상시는 물론이거니와 이처럼 환난의 때는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1. 양(Quantity)을 중시하는 시대

현대의 사람들은 내용보다는 가시적인 결과를 높이 평가한다. 짧은시간 내에 많은 회

중들을 모이게 하거나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면 능력자로서 칭송을 받게 된다. 이에 목회자나 선교사는 이런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역적 부흥을 위해서 서두르게 되고 무리수를 두기 쉽다. "내가 누

군데? 최소한 1000명 앞에서 설교해야할 자가 아닌가? 어떻게 비생산적으로 1명 앉혀 놓고 교육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오늘 시대의 사역은 대중적인 사역이 근간을 이룬다. 영화 '선들러리스트'의 메시지처럼 한 영혼(One more soul)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다. 이것은 불행이다. 자연현상의 이치를 보라. 화단에 있는 화초는 저마다 특수적 상황이 있다. 물이 필요한 것, 비료가 필요한 것, 어떤 화초는 시급히 벌레를 잡아주어야 하는 것도 있다. 현대 주인이 때와 조의를 무시하고 물과 비료를 흘뿌리며 전체적으로만 관리할 때에 화초는 결코 빠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

식물도 이러 할진대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오죽하랴? 인간은 화초나 아니 어떤 피조물보다 내면세계가 복잡하며 태생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집단으로 치료할 수 없듯이 영혼들도 개별적인 보살핌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양(Quantity)의 원천인 질(Quality)

사역이란 사업이든 뭐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요즈음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3Q전략이다. 질(Quality), 양(Quantity), 속도(Quick)를 의미한다. 특히 현대 전에서는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가 승패를 가름하기도 한다. 가상적 목표치를 위해 서두르다보면 질을 무시하고 우선 눈에 보이는 양에 집착하기 쉽다. 그러

므로 매사에 잔 쩌나 술수를 부리면 안 된다. 정도를 걸어야 한다. 일대일 사역은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선교적 방책이다.

3. 일대일 말씀사역(One to One Bible Study)

일대일 말씀사역(One to One Bible Study)이란 무엇인가? 이는 한 사람의 충성된 양육자가 동반자를 일대일로 만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삶을 나누며 서로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사역이다. 이 사역방법의 근거는 성경이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아브라함, 모세에게 나타나 각각 일대일로 말씀하셨다. 신약에 예수님도 대중적으로 사역하시면서도 중요한 때 일대일로 사람을 도우셨다. 주님께서는

을까? 이유인즉, 1)상대방에 대한 집중과 의사전달이 용이하다. 2)동반자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3)공동체에서 숨겨질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과 상처들이 드러나고 치유될 수 있다. 4)개인의 형편에 따라 맞춤 양육으로 동반자의 신앙이 체계화되고 견고해진다. 5)서로 간에 영적 교제를 통하여 진정한 동역자 관계가 형성된다. 6)양육자는 목자의 심정으로 동반자를 돌보게 되므로 계속적인 성장을 하게 한다. 7)이 사역은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시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5. 단순전도와 일대일 제자 양육에 대한 평가

이 사역의 특성은 수학에 비교된다. 수학에는 산술급수적

년 내에는 단순전도의 산술적 증가가 훨씬 앞선다. 그러나 13년째부터는 그 수치가 역전된다. 이후에는 제자훈련에 의한 기하급수적 방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배가된다. 일대일 방법은 어쩌면 속도전쟁인 현대에 맞지 않는 전략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역은 수치적으로도 기적을 낳는 가장 확실한 방책이다.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대일로 양육된 사람은 주일예배에도 참석하기 급급한 일반회중과 같을 수 없다. 이들은 양육을 받고 또 자신이 직접 양육자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파괴력은 감히 비교할 바가 못 된다. 명료한 사실 하나는 단순전도의 방식으로는 결코 인구 증가율이나 이슬람의 확장속도를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맺음 말

일대일 사역을 통한 선교도 전! 이는 위의 열거한 것처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단점도 없지 않다. 그 중 하나 특히 주의할 점은 자칫하면 예수의 제자가 아닌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파당을 짓기 쉽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운영자의 묘미에 달려있다. 교회나 선교회 차원에서는 양육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튼 일대일 사역은 지금까지 Covid-19의 영향으로 폐쇄된 사회환경 속에서 운용하기에 매우 유익한 방안이다. 설사 이 론처럼 그 수가 양적으로 배가되지 않고 질적으로 동반자가 기대치만큼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선용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원리가 성경적이며 거주지와 모족이라는 대나무와 같이 지역의 특성을 닮고 있기 때문이다.

jrson007@hanmail.net

선교는 사업이 아니라 사역이다. 사역의 핵심가치는 사람이다. 일대일 사역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는 첩경이다.

나 질이 없는 양은 없다. 양을 위해서는 질을 우선시해야 한다. 관건은 '질이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오늘 과일나무를 심고 1년 치 물과 비료를 한꺼번에 준다고 해서 내일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다. 빠르다고 다 빠른 것이 아니고 느리다고 다 느린 것이 아니다. 중국 성도에는 모죽(毛竹)이란 대나무가 있다. 이것은 처음 씨를 뿌린 후 거의 5년 동안 작은 순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5년째 말미에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거의 30m에 이른다. 다 때가 있다. 열매는 때가 차야 한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일은 모죽나무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요 3:16" 말씀을 나누실 때 일백만 명의 군중을 앞이 아니라 한 영혼인 니고데모 앞에서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소외되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도우실 때도 일대일이셨다. 이처럼 주님은 일대일 사역방법을 중시하셨다. 이 맞춤형 교육방법은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등 여러 선지자나 사도들도 사용하였다.

4. 일대일 사역의 장점

바쁘고 할 일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왜 일꾼양성의 수단으로 이 방법을 택했

증가와 기하급수적 증가란 두 개념이 있다. 산술급수적(Arithmetic) 증가란 매일 한 명씩 전도하면 1년에 365명이 된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3,650명이 된다 33년 뒤에는 정확히 12,045명이 된다. 그러나 기하급수적(Multiplication) 증가는 배가의 증식방법이다. 이 방안에 의하면 첫해에는 양육자가 동반자 한 명을 돌기에 2명이다. 다음 해에는 2x2=4명이 된다. 그리고 10년째는 1,024명이며 20년째는 1,048,576명이 된다. 예수님의 나이인 33년째는 현재 지구의 인구 77억을 훨씬 초과한 8,589,934,592명이 된다. 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10



드라마 서신서 (5)



김덕수 목사 (성터사역원 LA지부장/하늘소망교회 담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먼저 살펴본 후에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과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괄호로 처리하였습니다.

로마서의 배경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행적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터메드리오 폭동(행19:23-41)이 끝나고 바울은 유럽의 마게도냐로 이동을 합니다. 마게도냐에서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로 전달했던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역시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디도를 고린도로 보낸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에 조금 더 머물면서 '일루리곤'(롬15:19)까지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고린도) 지방은 이미 2차 선교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3차 선교여행 때 다시 방문을 할까요? 이유는 '현금 프로젝트'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교회들에게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교회를 위하여 현금을 부탁하였고(고전16:1-6, 고후8-9장), 그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

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운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다시 방문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보내면서(행20:1-3) 기록한 편지가 로마교회에 보낸 로마서입니다.

로마교회는 아마도 오순절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령강림사건을 목격(행2:10)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시 로마에 관한

송하며 후원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그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1-11장)는 이신칭의(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에 관한 교리적인 부분이며, 후반부(12-16장)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관한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목소리로 로마서를 함께 들어볼까요?

로마서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바울은 로마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롬1:1-7).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롬1:15).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롬1:16-17).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복음이 필

음'은 오직 예수님께서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롬5:1-11).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되고(롬6장), 율법으로부터도 해방됩니다(롬7장).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롬8:1-2) 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롬8:26),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롬8:34), 그 지극한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롬8:35-39)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모두 진실입니다(롬9:1).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롬9:19-33). 그것은 마치 '접붙임'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참감람나무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는 우리는 돌감람나무로서의 옛 본성을 거슬러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은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되었습니다(롬11:17-

10). 그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이웃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은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롬14:1-12). 그러므로 이웃에 대하여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롬14:13-23).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며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롬15:1-13).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아시야, 마게도냐)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전했습니다(롬 15:19). 이제 이곳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기 때문에 서바나(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여러분들(로마교회)에게 들러서 교제를 나눈 후에 여러분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롬15:20-24). 그러나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위하여 준비한 현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후에 여러분들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갈 예정입니다(롬15:25-29).

지금 이 편지는 뱀뱀의 편에 보냅니다. 그를 잘 영접해주기를 바랍니다(롬16:1-2). 그리고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롬16:3-20).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경계하시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바랍니다(롬16:17-20).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이 영원무궁 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롬16:25-27)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육중서신 네 권(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ukim@gmail.com

로마서: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중 고린도에서 기록 1-11장 이신칭의 교리•12-16장 구원받은 자의 삶

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롬1:18-31). 죄인들이 받을 심판은 사형입니다(롬1:32).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보상은 영생입니다(롬2:2-7). 그 영생을 얻는 것은 율법 행함(롬2:12-29)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롬3:19-24).

아브라함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롬4:1-3).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시점은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입니다(롬4:9-10).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롬4:11-25).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 '믿

24).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드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러야 할 진실 되고 바람직한 예배입니다(롬12:1-2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쁘히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되고 바람직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사랑"입니다(롬12:9-21). 사랑하며 사는 것이 율법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십계명에서 정한 간음, 살인, 도둑질과 이웃을 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롬13:8-

퀘이스선교회 후원 각 선교지 상황

퀘이스선교회(회장 전희수 목사, 이사장 윤세웅 목사, 사무총장 권계덕 목사) 중점지역인 세계 가정기도운동 및 선교 사역이 코로나19로 인해 기도회 모임대신 가정마다 양식과 생필품, 마스크를 전달해 돕는 사역으로 4월 사역이 진행됐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정현 선교사)의 사역은 코로나바 이너스는 이제 시작되고 있으며 특히 호수가 평균수면 2미터 이상이 되어 집들이 많이 침투되었고 옥수수농사도 실패해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식량부족이라고 전해왔다. 4월은 기도회 사역 대신 가정마다 옥수수가루 나누어 주는 사역으로 우선으로 하고 있다.

4월 30일까지 공식적인 확진자수는 500명이고 사망자는 10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 검사도 없고 예방이나 대책도 없어 대통령이 포기하고 격리도 안하고 있다. 문제는 확진자를 격리했는데 치료도 식수도 제공이 안 돼서 도망 나오고 있다. 땅은 크고 가난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냥 소멸되기만 바라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씩 연결금식기도를 하고 있다.

△콜롬비아(김혜정 선교사) 4월 가정기도회는 쉬지 않고 오디오를 통해 진행됐다. 자녀에 대한 편애와 훈육 문제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중보기도시간을 갖고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찬양과 짧은 메시지로 계속 양육에 힘쓰고 있다

콜롬비아 확진자는 6,507명, 사망자는 293명이며 통행금지 및 도시간 이동제한으로 급격한 확산을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퀘이스선교회의 선교비로 각 가정마다 생활필수품을 나누주며 오랜만에 어머니들과 가족들의 얼굴을 반갑게 만나 보는 사역을 하고 있다.

△네팔(새빛들이 선교사)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45명이며 사망자는 한명도 없지만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선교사님이 직접 만들어서 가정마다 생활필수품과 함께 전해주는 사역을 하고 작은 인원이 모여 가정기도회를 하고 있다.

△과테말라(박윤정 선교사)는 가정기도회를 모일 수 없는 대신 4월 동안 가정들

을 방문하여 생활필수품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현지 전도사와 동행하며 진행했다.

△엘살바도르1(황은숙 선교사) 황은숙 선교사도 직접 마스크를 만들고 생활필수품, 양식 등을 가정마다 전하는 사역을 남편 황영진 선교사와 함께 하고 있다.

△과파라과이(이명화 선교사)도 엄격한 통제로 인하여 60세 이상은 밖에 나가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교회모임도 못하고 엄격한 벌금을 책정해 놓았다. 의료시설이 열악하기에 국경과 공항은 모두 폐쇄되고 엄격한 조치에도 확진자가 249명이 됐다.

옆 나라 브라질, 알젠티, 볼리비아 등도 국경을 봉쇄한 상태기에 식용품 가격이 폭등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에 퀘이스선교회의 선교 후원금으로 생활필수품을 가정마다 전달하는 사역과 함께 선교사 가정에서 가정기도회 기도로 사역하고 있다.

△엘살바도르2(조정연 선교사) 엘살바도르 엘카르멘 순복음교회는 천막교회에서 개척해 7개월 예배드리다가 새로운 땅을 구입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정리하지 못하다가 이제 땅을 고르고 화장실 정화조를 봤다. 이동이 제한된 상태기에 현지인 전도사를 통해 각 가정마다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는 사역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사제공: 퀘이스선교회)



탄자니아



콜롬비아



네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1



과테말라

캐플린 임상목회 (39)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병원 채플린)

요양원의 숨겨진 진실

불과 50여년 전만 해도 병들고 나이 든 부모는 자식들 중의 하나가 노년을 보살펴드리며 함께 사는 것이 사회통념이었다. 특히 장자나 장녀가 그 일을 당연히 맡아서 감당하기에 만자식에게는 부모의 유산도 절반 이상을 상속하도록 하였었다. 이제는 모든 자녀가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유산도 상속받고 자녀들은 부모 봉양의 책임을 지지 않고 손쉬운 방안으로 요양원에 보내서 여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지병이 있거나 치매 정도에 따라 물론 일반요양원(Nursing Home)에서부터 치매전문요양원(Memory Care Nursing Home), 혹은 전문간호요양원(Skilled Nursing Facility)에 입소해서 보살핌을 받게 된다. 이 결정은 물론 담당의사나 사회복지사가 환자 본인의 보험과 Funding 여부를 고려하고 가족과 상의하여 요양원을 접촉하고 입소 허락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곧바로 요양원으로 보내진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요양원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내에서 최초의 집단감염 사실이 알려졌던 곳도 바로 워싱턴 주의 요양병원이었었는데 이때까지 만해도 중국여행을 다녀온 한 커플에 의해 우연히 감염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뉴욕을 비롯한 미 동부지역의 급격한 확진과 사망이 집중적으로 요양원에서 발생하자 그제서야 관심과 시선을 돌리며 본격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LA 한인타운의 요양원마저 집단감염이 보고되기에 이르렀다. 각 주정부 및 미질병관리본부(CDC)는 미 전역의 요양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와 감염실태를 조사 중이며 머지않아 그 현황과 대책을 발표 하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요양원들이 집단감염의 온상으로 떠오르게 된 것일까? 첫째 이유는 요양원의 운영 및 구조, 요양사들의 훈련 및 교육, 부족한 예산 및 간혹 인력을 뽑을 수 있다. 대부분의 요양원들은 총별로 입구에 한두 명의 요양사(정식면허소지자) 및 보조 간병인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전체에 한 명 정도의 정식 간호사(은퇴 간호사 혹은 당직호출 간호사)밖에 없고 담당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 혹은 전화로 입원 여부나 타 기관 혹은 재할원료로의 이송이나 퇴소 등을 결정하는 일만을 한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간호사나 요양사의 부재로 확진자가 발생한 후 격리나 소독, 병원 이송이나 입원 등의 후속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2차 3차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대부분 무증상자나 호흡기 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갖고 입원하고 있는 요양환자들이 같은 층에서 식당이나 욕실, 화장실을 공유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소수의 돌보미들이 철저한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방에서 방을 오가며 감염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미주 동포들 가운데서도 상당수의 은퇴자들이 한인, 아시안, 혹은 일반 요양원에 입소해서 여생을 보내게 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와 주정부의 신속한 대응책과 개선책이 언제보다도 더 간절히 기다려지는 실정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시42:5).

tdspark@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차성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성경-금: 오전 5: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00 토요한국교회: 오전 9:3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청년예배: 오후 1:20 영어전 (장소: KDC, 링컨데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949)854-4010 / bethel@dkc.org / www.d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모임: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3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일예배 장소) Office: 106 S. Western Blvd. Los Angeles, CA 90004 (수요모임 장소)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1-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 4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45(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요일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5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 새가족지원센터 협동사 사역지역: (월-금) 오전 9:45-오후 4:30 EM 예배: 오전 9:45 (1018)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상담사역 4. 네트워킹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6:00(토) 은혜사제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운영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예배: 오전 5:30(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tonejw.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2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M 예배: 오전 9:45 (1018)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찬양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g.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수요모임: "어성령이 임하여" 오전 9:30 새벽기도: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영어로 보는 성경 (63)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2 Peter 1:3,4

3)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we need for life and godliness through our knowledge of him who called us by his own glory and goodness.
 4) Through these he has given us his very great and precious promises, so that through them you may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and escape the corruption in the world caused by evil desires.

(NIV 1984)

WORD & IDIOM

* divine: 하늘의, 신성의 * godly: 경건한 * goodness: 선 * precious: 귀중한, 가치가 있는
 * so that A may ~: A가 ~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는 A가 ~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 participate in ~: 에 참가(참여)하다 * escape: 탈출하다, 달아나다 * corruption: 부패, 타락
 * cause: 원인이 되다, 일으키다 * evil desires: 사악한 욕망

GRAMMAR

3)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그의 신성한 힘 주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① we need for life and godliness through our knowledge of him
 우리가 필요하다 생명과 경건을 위하여 그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통한(지식으로 인한)

② who called us by his own glory and goodness.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 그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 ⇒ 그의 신성한 힘이 그분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우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생명과 경건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주어(S) 동사(V) 간접목적어(IO) 직접목적어(DO) = 4형식 문장이다. 4형식

문장에서의 간접목적어는 (~에게)로, 직접목적어는 (~을, 를)로 해석한다. 이 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수여동사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동사가 <give>이다. (~에게)를 나타내는 간접목적어는 주로 사람이나 생물이며 (~을, 를) 나타내는 직접목적어는 사물들이다. * <has given>는 현재완료시제로써 지금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아래의 4절에서도 <has given>이 쓰이고 있다.

* ① 안에 <we need>의 목적어, 즉 선행사 <everything>을 가리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으며 ②의 <who>는 주격관계대명사로 바로 앞에 있는 <him>을 가리키는 것이다.

4) ③ Through these he has given us his very great
 이것들을 통하여 그는 주셨다 우리에게 그의 아주 위대하고

and precious promises,
 그리고 귀중한 약속(들)을

so that ④ through them you may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이는 그것들을 통하여 너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신의 성품에

and escape the corruption in the world
 그리고 타락을 피하다 세상 안에서

caused by evil desires.

악한 욕망으로 인한 ⇒ 이로서 그는 우리에게 그의 아주 위대하고 귀중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그 약속들로 하여금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악한 욕망으로 인한(욕망에서 기인된) 세상의 타락에서 피하게 하려 함이다.

* 4절 말씀에서 ③의 <through these>는 <그분의 영광과 선>을 가리키며 ④의 <through them>은 위대하고 귀중한 약속(들)을 가리킨다. <caused>는 <the corruption in the world=세상의 타락>을 뒤에서 수식하는 과거분사로 형용사 역할을 한다. <caused by ~>는 <~에 의해 기인된, 초래되어진>이란 의미이다.

STUDY & THOUGH

■ 인간이 서 있는 영역은 악 아니면 선 둘 중에 하나이다. 그 사이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마6:24). 따라서 세상을 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곧 세상을 피하는 것이다. 이 둘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동시적 개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을 버리고 천국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위하여 전념하는 자이며, 모든 인간은 그 생활을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다.

■ We should be in a relationship with God and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전도자의 일상생활(막6:30-34)찬366장

그 왕 예수그리스도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통해 전도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본입니까? 첫째, 그 왕의 안식-바쁜 가운데도 잠깐 쉬도록 하셨습니다(30-31). 제자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접할 때 오는 육체의 피곤함을 해소하기 위해 안식할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노동과 안식의 균형은 전도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둘째, 그 왕의 긍휼-그는 긍휼로 충만했습니다(34). 복음을 모르는 방황하는 무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아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이 전도자를 치료하고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 왕의 겸손-바쁜 가운데도 그는 기도하기위해 한적한 곳에 가기를 좋아하셨습니다(32). 전도자의 능력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흘러나옵니다. 친히 본을 보이신 그 왕을 따라 끝까지 쓰임 받는 일꾼이 됩시다.

화 필요를 채우시는 그 왕(막6:35-44)찬410장

성경의 기적은 표적이기에 모두 의미를 가집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첫째, 하나님나라 왕의 무한한 부요를 나타내십니다(35-37). 빈들 저녁에 남아만 오천 되는 무리를 제자들로 먹이게 명하시지만 결국 그 자신이 풍성하게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시는 자신의 초월적인 부요함을 나타내심으로 자기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왕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원리를 가르

칩니다(41-43). 작은 것이지만 그의 손에 들려지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의 선언은 큰 믿음의 표현입니다. 셋째, 그나라는 자기백성의 악한 것을 사용하시나 그 왕이 친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41). 이 발광하는 세상에서도 그 왕은 친히 그 나라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 왕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갑시다.

수 왕이 가진 세 신분(막6:45-52)찬375장

그 왕은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왜 보이셨습니까? 3가지 신분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중보자이심을 보이셨습니다(46). 산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다 아시고 밤중에 물을 걸어서서 그들 문제를 해결하심은 그가 중보자 되심을 보인 것입니다. 둘째, 그는 섭리자이십니다(47-48). 풍랑과 파도 위를 걸어서서 말씀으로 잔잔케 하심은

삼라만상을 다스리시는 관리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수한 박테리아, 바이러스의 움직임까지도 그 분이 다스립니다. 셋째, 구원자이심을 보이셨습니다(50-52). 괴롭게 하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심은 구원주로서의 권능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를 섬기는 우리는 가장 큰 평화를 누릴 자입니다.

목 풀러넘치는 치료의 능력(막6:53-56)찬469장

자기백성의 죄와 연약과 질고를 모두 담당하신 그리스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첫째, 그는 언제 어디서나 치료의 사역을 기뻐하셨습니까(55).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각종 병자를 데리고 그에게로 나온 것 자체가 그 왕의 능력의 나타남입니다. 지금도 그에게 오기만하면 반드시 치료의 은혜를 받습니다. 둘째,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만 하면 능력을 경험합니다(56). 믿음으로 그의 옷가에 대기만해도 치료되었습니다. 셋째, 그는 모든 질고를 고치시는 치료자이십니다(56). 그 능력은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실 십자가의 효능이 미리 나타낸 것입니다(사53:5). 우리시대의 온갖 육체적, 환경적, 정신적 고통을 그 왕이 담당하심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 때 치료의 강수를 지금 마실 수 있습니다.

금 외식의 위험성(막7:1-15)찬408장

어제나 오늘이나 그 나라 백성이 경계할 것은 외식입니다. 어떻게 외식을 경계할 수 있습니까? 첫째,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6). 전적으로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에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면 온갖 죄가 일어납니다. 유대인의 외식주의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나게 했습니다. 둘째, 비성경적 전통을 성경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7). 전통을 파괴하

고 타협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알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셋째, 하나님나라 중심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14-15). 율법주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우리 속에 자리 잡은 거짓과 싸우기 위해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모든 방면에 적용합니다.

토 신본주의 윤리(막7:1-18)찬82장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치러야 할 일입니다. 그 왕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사람의 전통이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13). 본래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율법주의로 떨어져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을 이룰 수 없습니다(마23:23). 오직 이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는 성령으로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8). 사람의 윤리는 하나님의 계명인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깨달아 그것을 지킬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 신본주의 윤리를 추구해야 합니다(11-18). 신자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방면에 나타내야 합니다(마28:19-20).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킹장 완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기도하는 리더만이 영향력 준다!

리더십저널, 데이브 얼리 목사가 전하는 소그룹 리더의 최상무기 소개

복음 전도자 고든(S. D. Gordon)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를 뽑으려면 바로 기도일 것이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아주 매력적인 수단이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일들 중 하나다. 25년간 소그룹을 인도하고 소그룹 리더들을 코치해온 데이브 얼리 목사는 기도는 소그룹 리더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얻었다고 말하며, 유능한 소그룹 리더들이 멤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준다.

기도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리더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조엘 코미스키(Joel Comiskey)는 소그룹 리더들을 조사해 보았는데 기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소그룹 성장 사이의 흥미로운 상관관계가 드러났다고 말한다. 그것은 매일 경건의 시간을 90분 이상 갖는 리더들이 30분미만을 갖는 리더들보다 그룹을 재생산시키는 경우가 두 배나 많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기도는 시간을 절약해준다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가 하루 일과에 짓눌려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

절약하게 해주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한번은 그의 이발사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저는 아주 바쁜 날이 아니면 보통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합니다. 바쁜 날은 3시간 기도하고요."

기도는 어디에나 이르고 무엇 이든 할 수 있다

게 활력을 준다.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게 해준다. 교제와 나눔에 재미를 더해준다. 멤버들이 서로 더 가까워지게 해준다. 기도는 항상 플러스가 된다.

우리가 모든 리더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 P.A.C.E.에 헌신하는 것이다. P.A.C.E.란 매일 기도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최단기간 변화방법 불가능을 가능하게, 항상 플러스로 만들어

치 않은 것처럼 보인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장 큰 핑계거리는 바로 너무 바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은 기도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가 사실상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몇 달 또는 몇 년을 일해도 달성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단 기간에 하시도록 만드신다.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조언하고, 꾸짖어도 효과가 거의 없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믿음을 나누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거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사람들이 단기간에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주 효과적인 시간절약기다. 이것을 이해했다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마르틴 루터는 시간과 노력을

기도는 모든 곳에 미칩니다. 모임을 갖고 있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 하루 24시간 내내 소그룹 지체들 모두와 만남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소그룹 멤버와 함께 그들의 집이나 직장까지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기도는 또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든다. 기도는 하나님을 그 상황 속으로 모셔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렘32:17). 그는 기도의 결과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

기도는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든다

기도는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다. 기도는 당신을 더 사랑스럽고 영적으로 민감한 리더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소그룹이 살아나게 할 수 있으며, 소그룹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준비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모임 중에 멤버들에

하기(Pray daily),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되어주기(Be Available in time of need), 정기적으로 연락하기(Contact regularly), 그리고 전진하는 크리스천의 모범이 되기(Example of a progressing Christian)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 기도가 제일 앞부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결국 소그룹을 오래 인도하다 보면 반드시 심각한 영적 싸움에 직면하게 된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가 기도와 재생산이다. 둘 다 성공하는 소그룹의 DNA 안에 있는 것들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를 제압할 수 없으나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 안에서 행하게 된다. 무릎 꿇음으로써 성공적으로 그와 싸울 수 있다. 무릎으로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오직 하나의 무기만이 그를 막고 밀어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무기다. 기도는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의 가장 중요한 습관이기에 중요하다.

원로칼럼

개혁교회 전통에서 본 교회와 국가의 관계(상)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최근에 우리나라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설정과 기독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데 기독교계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이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 교회 목회자들이나 각 교단의 지도급 목사들은 교회와 국가는 분리해야 하고, 교회는 중립을 지키고 오직 기도와 구령(救靈)에만 전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분들은 교회는 국가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항거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기독교가 정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한다. 이런 입장에 있는 분들은 대개가 작은 교회 성도들 또는 지방 교회성도들이 많다. 이른바 민초들의 외침이 있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이 기독교당을 만들어 국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에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이른바 광화문 정치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중대형교회 목사들은 중립을 표방하면서 기독교인이 예수 이름으로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는 것은 교회가 정치에 간여하는 것이라 해서 매우 비판적 입장에 있다. 한편 반대쪽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중북주의자로 몰아세우고, 정권과 야합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아닌 그의 삶과 행동이 정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이에 대해 필자는 우선 개혁주의 전통에서 본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제2의 칼빈(John Calvin, 1509-1564)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회와 국가에 대한 문제는 시대마다 기독교 역사에 항상 중요한 주제였으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정치'와 연결된다고 본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한 아주 나쁜 선례는 로마카톨릭이 교황권을 확대하여 세속정치를 억누르는 세력이 되어왔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 되느냐 또는 교회는 오직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만으로 만족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데올로기가 좌 편향되거나, 국가의 정체성이 훼손되거나 국가의 헌법에 위배되어 갈 때, 강하게 항거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런 논의는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말할 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주제라고 본다.

19세기 칼빈주의 정치이론 발전시킨 카이퍼, 기독교정치 활성화 카이퍼는 칼빈과 같이 교회의 개혁과 정치의 개혁 동시에 주장

칼빈(John Calvin, 1508-1564)의 신학사상은 신본주의(神本主義)에 근거하였고, 그의 정치이해도 하나님중심이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회개혁자 요한 칼빈은 제네바의 생베레레교회 목사이면서 제네바 시를 민주공화제로 개혁해 나갔다. 그래서 그는 제네바를 사도시대 이후 가장 이상적인 거룩한 도시로 만들었다. 그러나 칼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칼빈 이후에 칼빈주의 정치이론을 발전시킨 것은 19세기에 와서 다시 아브라함 카이퍼가 부흥시켰다.

그것은 곧 흐룬 반 프린스터(Groen Van Prinsterer)와 아브라함 카이퍼 등에 의한 칼빈주의적 정치 이론의 정립과 그 실현이었다. 흐룬은 역사학자이자 기독교정당의 당수로, 화란의 수상으로 카이퍼의 생애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 흐룬은 1869년 5월 16일 열정적 대 설교가요 철저한 개혁주의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를 자기의 사상적 후계자로 지명했다.

그는 화란의 국가와 교회의 운명을 칼빈주의적인 사상 위에 굳게 세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전반에 걸쳐서 일할 결출한 인물로 카이퍼를 지명했다. 이는 마치 제네바에서 칼빈과 파렐(Farel)의 만남과 흡사했다. 여기서 생각해볼 것은, 왜 19세기에 카이퍼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기독교 정치의 활성화를 부르짖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6세기와 17세기에 찬란하게 꽃 피었던 화란의 개혁주의 사상은 18세기와 19세기에 와서 유럽 전체가 그러했듯이 화란도 계몽주의, 합리주의, 공산주의, 무신론사상이 국가에 누룩처럼 퍼져서 교회는 병들고, 국가는 이른바 국가의 절대 권력을 남용해서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교회를 장악했다.

그즈음 유럽은 모두 국가교회(State Church)가 되어버렸다. 그때 카이퍼라는 결출한 영웅이 나타났다. 그는 대신학자, 대정치가, 대목회자, 칼빈주의자, 언론인, 교육자, 설교자로 나타나 화란교회를 16세기 종교개혁사상으로 다시 한 번 더 개혁할 것을 주장하고, 이른바 재개혁과 교회(Gereformeerde Kerk)를 세웠다. 그래서 그는 시편 119:105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란 말씀을 토대로 교회와 국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16세기에 요한 칼빈의 신학과 신앙으로 복귀할 것'을 외쳤다.

카이퍼는 칼빈과 같이 교회의 개혁과 정치의 개혁을 동시에 주장했다. 카이퍼는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에서 국가와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았다.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인간은 죄로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간이 완전하고 무결하다면 정치의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의 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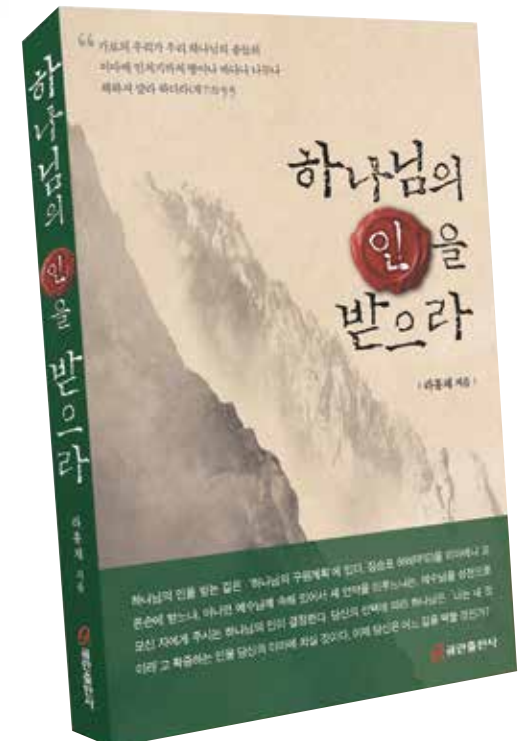
skc0727@yahoo.com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